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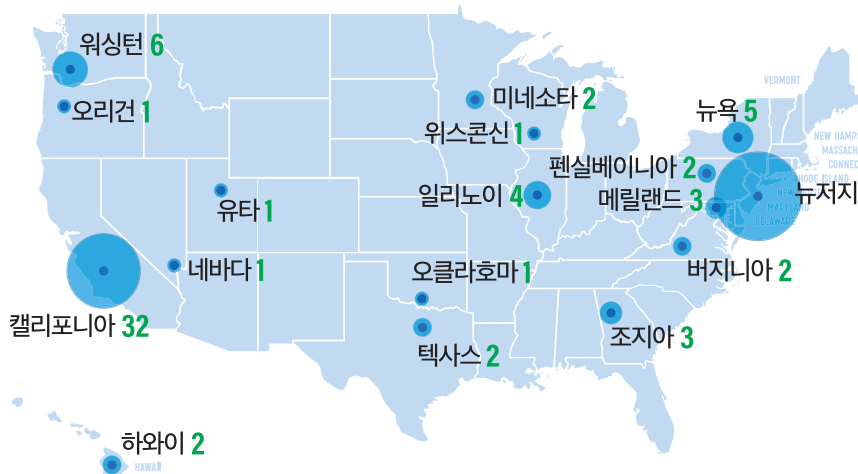
COPY RIGHT 2024 제 691250호

Tuesday, March 11, 2025 A

## 전국서 한인 선출직 공직자 110명 맹활약

워싱턴 지역 주의원 3명,  
검사장 1명, 교육위원 1명

한인 선출직 분포



전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선출직 공직자가 1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집계한 숫자다.

KAGC는 연방 및 주의회의원, 로컬 정부 시의원 등에 선출된 한인들의 명단을 정리해 이들의 지역구와 정치 성향 등을 공개했다. 우선 연방의회에는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을 비롯해 영 김(공화·가주), 데이브 민(민주·가주), 매릴린 스트라랜드(민주·워싱턴)하원의원 등 총 4명이 포진해 있다. 실비아 루크와 제이미 스티어링이 각각 하와이주 부지사, 메릴랜드주 세인트 메리 카운티 검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 최석호(공화·가주), 패티

김(민주·펜실베이니아), 도나 메르카도 김(민주·하와이) 등 3명의 주의회 상원의원도 배출했다.

전국적으로 주의회하원의원이 9명, 시장은 7명, 시장대행도 1명이 있다.

워싱턴 지역에는 메릴랜드의 마크 장, 데이브 문, 버지니아의 아이린 신 하원의원이 활약하고 있다.

2명이 카운티 및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부의장 1명, 시의원은 21명이

주별 현황 (2025년 기준)

	입법	행정	사법
뉴저지	20	22	0
가주	10	14	8
워싱턴	4	2	0
뉴욕	4	1	0
일리노이	1	3	0
조지아	3	0	0
하와이	1	1	0
메릴랜드	2	1	0
미네소타	1	0	1
펜실베이니아	1	0	1
텍사스	0	0	2
버지니아	1	1	0
네바다	1	0	0
오클라호마	1	0	0
오리건	0	1	0
유타	1	0	0
위스콘신	1	0	0

자료: KAGC

스 카운티의 문일룡 교육위원이 유일하다. 총 110명 중 89명이 로컬정부 선출직이다. 한인 선출직 공무원이 많은 곳은 뉴저지(42명)가 압도적이다.

가주(32명)와 워싱턴(6명), 뉴욕(5명), 일리노이(4명), 메릴랜드-조지아-일리노이(3명), 버지니아-미네소타-펜실베이니아-텍사스(2명)가 뒤를 이었다. 인구가 8000여명에 불과한 오클라호마에서도 주하원의원으로 당선(2018년)된 대니얼 배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각급 의회 의원 중 소속정당은 민주당 28명, 공화당은 14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연방상하원의원 추가 배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 한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있는 조지아주에서도 한인 연방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김영남·김욱재 기자

## “공수처는 적폐기관, 반드시 폐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하게 현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인사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석방된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여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초대해 차담 시간을 가졌다. 오후 8시에 만나 30분가량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여권 핵심부 3인의 차담 회동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오전 공개하며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 달라

는 당부를 했다”며 “서로 건강 관련 안부를 물었고,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당시의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 자격”이라고 했었는데, 이날은 “당 지도부가 인사 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9일 점심에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8명의 수석비서관과 김태호 국가안보실1차장 등 안보실 1·2·3차장 등 총 15명의 대통령실 참모와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했다. 메뉴는 떡만둣국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참석자 면면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라고 평했다. 오찬 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정 비서실장 주재로 고위급 참모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여당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10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 트랜스젠더, DEI 용어 사용 제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입수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주로 민주당, 혹은 좌파와 관련된 ‘깨어있음(woke)’ 연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제한 조치가 내려진 용어는 200여개로, 태생적 여성(assigned female at birth), 성전환자(trans) 임신부(pregnant person) 등은 물론 특정 유색인종을 지칭하는 BIPOC, Latinx 등도 금지된다.

또한 인종적 다양성(racial diversity)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 혹은 제한된 용어를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교육부도 각급 공립 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항공국(FAA)와 채용 관련 웹사이트와 연방국무부의 기후위기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삭제됐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인 ‘연방정부 검열 종식’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하원의회 합동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이 더 이상 깨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 전체에서 DEI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동우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Total Business Solution

스마트보험에서는 비즈니스 보험과 직장 건강보험 관련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업종별 맞춤 비즈니스 보험  
(GL, WC, E&O, Bond 등)

베네핏 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직장 건강보험

전담 컨설턴트 배정 및 운영 지원

미주 진출 한국 지상사 전문 상담

당사 전용 글로벌 직장 건강보험  
(United Healthcare, Aetna)

\* 한국내 유명 병원에서도 사용가능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등)



Smart Choice for Smart People

smartinfo@solomonus.com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703-639-0882

# “큰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 경제 과도기 거칠 뿐” 트럼프 대통령 경제 자신감 내비쳐

최근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미국 경제)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드는 매우 큰 일”이라며 “이러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란 가격 폭등 사태 등을 놓고 일련의 경제적 상황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탓으로 돌렸다.

주식 시장 랠리가 끝난 점에 대해 “나는 주식시장을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부 장관도 “우리의 시장과 경제는 정부 지출에 심각

하게 중독된 상태로, 해독을 하는 디톡스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기’와 보조를 맞췄다.

일각에서는 주식 시장 침체보다는 달러화 약세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달러화 가치는 올해 고점 대비 6% 하락했다.

유료화와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월 중순 110.176까지 올랐다가 최근 103대를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정책,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우크라이나전쟁 등 대외 관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및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0% 상승해,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었다.

이번 주 발표될 2월 CPI 상승률도 연방준비제도(Fed)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2.9%가 예상된다. 미국인이 소비자 출을 줄이고 있으며, 실업률과 순고용치도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 DOGE 머스크·국무장관 루비오, 진짜 싸웠나?

트럼프 “뉴욕타임스 가짜뉴스” 비난

뉴욕타임스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백악관 회의 중 크게 다투었다며 연일 특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혹평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밝히지 않으며 머스크와 루비오 장관이 최근 내각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고 보도했다.

첫 충돌은 지난 6일 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인력감축 문제로 촉발됐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머스크가 루비오 장관을 향해 인력 감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USAID) 폐지 문제를 놓고 머스크에게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차에, “머스크가 신뢰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이미 자진사



일론 머스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퇴 프로그램을 신청한 국무부 공무원 15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는 말도 했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1500명을 해고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해고하기 위해 재고용해야 하겠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루비오 장관이 TV에는 매우 좋은 이미지로 비춰진다”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설전을 마치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듯 팔

짱을 끼고 구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론 머스크와 마르코 루비오는 아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관계 외의 모든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머스크와 다른 내각 각료들을 모두 칭찬하며 절충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 워싱턴 지역 단신

## 1월 주택매매 12.5% 예약 취소

지난 1월 워싱턴 지역 주택 매매 계약 8건 중 1건 꼴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14%가 취소됐다. 팬데믹 이후 입찰 경쟁으로 인해 인스펙션 없이 계약하는 경

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스펙션 컨디션 조항에 의해, 계약 이후 공지방지 못한 하자를 발견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방공무원 해고 등 최근의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VA 5일 유급병가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

여러 언론이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연간 최대 5일의 유급 병가 법안을 서명할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으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유거브 여론조사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 83%가 유급병가 법안을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던 네브라스카, 알래스카, 미주리 등도 202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유급병가 법안을 확정했다.

워싱턴DC는 연간 최대 7일, 메릴랜드는 최대 5일의 유급병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 야생동물 폐사 주요 원인은 쥐약

워싱턴지역에서 폐사된 여러 야생동물을 조사한 결과 쥐약을 먹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야생동물보호센터는 쥐약 섭취로 인해 혈액이 응고돼 비타민 K 처방을 받은 야생동물이 2017-2019년 각각 한두 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25건, 2024년 38건 등으

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다람쥐 폐사의 경우 82%가 쥐약 때문이었다.

팬데믹 이후 워싱턴 도심 지역의 식당 등이 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쥐메들이 주택가를 휩쓸면서, 지역정부와 주민들은 다량의 쥐약을 살포했다.

## MD 재산세 과세표준 7년 연속 상승

메릴랜드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7년 연속 상승했다.

메릴랜드 세무평가국(SDAT)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에만 20% 이상 올랐다.

SDAT는 올해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의 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작성을 위한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거주공제 등의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계란 비축 용도, 얼려도 된다

연방농무부와 버지니아 농무부가 계란을 얼려도 되는지 질문을 받고 특정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계란을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면 최대 1년 동안

냉동보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분리한 후 냉동실 용기나 지퍼백에 넣고 여분의 공기를 빼고 보관해야 한다. 애초 냉동됐던 계란 제품은 빙점 이하에서 1년까지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박동우 기자

**워싱턴 날씨 (°F)**

12일(수) 67~40	15일(토) 66~57
13일(목) 62~41	16일(일) 72~53
14일(금) 57~44	17일(월) 58~38

3월 11일(화) 73~4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b>RENT</b> 1-495 가까운 1층 콘도 킹스팩 \$1,600 방1, 화1	<b>RENT</b> 4층 타운하우스 현면 \$4,100 방4, 화4 1/2, 차고2	<b>RENT</b> 4층 타운하우스 현면 \$3,900 방4, 화4 1/2, 차고2
---	--	--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가 새로이 출범하여 이에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 Park & Woo, P.C.

그 동안 저희가 일했던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를 믿고 여러 사안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이민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 미국에 외국 지리명 1만개 이상

한국은 513개, 터키가 가장 많아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200개 이상인 국가는 아일랜드(459개), 조지아(452개), 그리스(427개), 팔레스타인(314개), 러시아(283개), 캐나다(277개) 등이다.

덴마크, 모로코, 베냉, 스코트랜드, 네팔, 가나, 타이완, 페루, 사이프러스, 태일란드, 저팬, 파나마, 수단, 오만 등도 50개 이상이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외국 도시 이름은 예루살렘, 안디옥, 베들레헴, 헤브론 등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었다.

사람의 라스트 네임으로는 조단, 프렌치, 잉글리쉬, 웰쉬, 잉글랜드, 저먼, 아일랜드, 프랑스, 이스라엘, 스페인 등이 많이 쓰였으며, 퍼스트 네임은 조단(남), 차드(남), 조단(여), 조지아(여), 이스라엘(남), 케냐(여), 인디아(여), 케냐(여), 케냐(남), 차이나(여) 등의 순서였다. 김옥채 기자

미국에 외국 이름이 붙은 지리명이 1만개 이상으로 조사됐다.

연방지질조사국(USGS)의 지명정보시스템(GNIS)에 의하면, 각급 정부가 부여한 전국 230만개의 하천, 산, 언덕, 바다, 공동묘지, 도로 등의 지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였다.

이중 터키가 2289개로 가장 많았다.

터키는 유럽의 국가명 외에도 조류 칠면조의 이름과 겹쳐져 있어, 분리가 쉽지 않다. 터키를 제외하면 프랑스(1351개)와 네덜란드(1065개), 독일(1000개)이 가장 많았다.

영국(800개)은 국가명보다는 영국의 여러 도시 이름이 미국의 도시 이름으로 그대로 이식된 경우가 많았다.

중동지역의 요르단(1020개)은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조단과 겹쳐져 있으나, 성경 지명과 유래 등을 구분하기 어

렵다. 이밖에 레바논(996개), 스페인(724개), 중국(640개), 이스라엘(578개), 멕시코(532개) 등의 순서였다.

한국 관련 지리명도 513개나 됐다.

버지니아 컬페퍼 카운티의 코리아 로드(KOREA RD)가 대표적이다.

1899년 연방우정국이 버지니아에 우체국을 추가하면서 아무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이름을 찾다가 '버지니아 코리아 우체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으며, 현재에는 이 근처 도로 이름이 코리아 로드로 남아있다.

현재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236도로 일부 구간을 한국관련 명칭을 붙이기

# 5월같은 3월 날씨 이어져

다음주 36개주 이상  
최고기온 70도 넘어



3월 중순이 지난 5월과 같은 기온분포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기상청(NWS)는 고온 현상이 당분간 계속돼, 이번 주말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전국 36개주의 최고기온이 70도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쪽으로는 사우스 다코타 주도 포함돼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다음주 평균기온은 예년보다 2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기온은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기상전문가들은 최근 10년래 가장 추웠던 겨울을 막 통과한 지점이

라 더욱 대비된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를 잇는 횡단축 아래 지역은 낮최고기온이 80도를 넘게 된다.

텍사스 남부지역은 100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적 폭우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미 기자

# 미국 이민간 어머니 찾습니다

해외입양인이  
헤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김영미 (1963년 6월 16일 출생) - 워싱턴주 흥연초등학교 졸업

랭위시의 생부는 김택진 (1938년생), 생모는 김명례(1944년 4월 8일생)로,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로 나온다. 김옥채 기자

한인 입양인 출신 김 랭위시 사연

최근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한 한인 입양인의 생모를 찾는 포스팅이 널리 퍼지고 있다.

역시 입양아 출신으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마크 래필드(facebook.com/groups/379487389387711/user/1675909757)는 자신의 입양인 친구 김 랭위시(Kim Langworthy, 한국명 김영미)의 사연을 알렸다.

랭위시는 최근 한국에 있는 생부를 찾았는데, 그를 통해 생모의 소식을 접했다.

생부와 생모는 1968년에 이혼했는데, 한국의 호적 관련 기록에 의하면 생모는 1980년에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나온다.

생모 쪽 식구들 몇 명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아칸소리를 목으로 이민갔다는 기록도 찾았다.

한국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생모가 미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페닌슐라 지역 순회영사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22일(토) 버지니아 페닌슐라 지역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페닌슐라 한인회관(13750 Warwick Blvd,

Newport News, VA 23602)에서 진행된다. 처리가능 업무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신고 등이다.

업무별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usa.

mofa.go.kr)를 참고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다. 여권 비용의 경우 10년 일반 여권은 50달러, 8세 미만은 33달러다.

>안내: 페닌슐라 한인회(757-864-1803) 김윤미 기자

# 멕시코 갔다온 MD 주민 홍역 발병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주민 한 명이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이후 홍역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은 3월5일 오후 4-9시 사이 탈레스 공항 국제선 도착장에 있었던 주민은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3월7일 오후 3시30분-7시30분 사이 환자가 내원했던 존스홉킨스대 학병원도 리스트에 올랐다. 두 곳에 있었던 주민 중 홍역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에 의해 쉽게 전염된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홍역 백신을 모두 접종하지 않은 주민 중에서 동일 시간에 위의 장소에 방문했다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펜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점점

에 이르면서 텍사스, 뉴멕시코 등 전국 12개 주에서 모두 200여명의 홍역 환자가 보고됐다.

홍역은 초기 증상으로 보통 화씨 101도 이상의 고열과 콧물, 기침, 홍조, 눈물 등이 거론된다.

감염 후 1-4일이 지나면 얼굴과 몸통 등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홍역은 또한 폐렴과 뇌 감염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두번의 홍역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평생 면역력을 지닐 수 있지만, 불완전 접종 혹은 접종하지 않은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음모론자가 임명되고 백신 미접종에 대한 각종 규제 금지 위한 소송이 승소하면서 백신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유대교 근본주의 등 특정 종교집단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 2025년 봄학기 개강안내

## 베다니 장로교회

**2025년 봄학기 [베다니 수요일 여성]**

- ▶ 기간: 3월 12일 ~ 6월 4일, 매주 수요일, 총12주 (4/16 고난주간 휴강)
- ▶ 시간: 오전 10시 20분 ~ 오후 1시 30분
- ▶ 대상: 여성이면 누구나 (연령제한 없음)
- ▶ 장소: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 본당
- ▶ 주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여성
- ▶ 목적: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성분들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을 얻기 위한

10:20 ~ 11:00	예배
11:00 ~ 11:30	찬양 스텝
11:30 ~ 12:30	1교사: 말씀 묵상반, 기도나눔반, 탁구반
12:30 ~ 1:00	Break
1:00 ~ 1:40	2교사: 키보드반, 꽃꽂이반

\* 수요일 여성 시간에 Child program을 함께 진행합니다.

▶ 문의: 지경숙 권사 (240-888-0791)  
허진우 목사 (301-550-1427)

**2025년 봄학기 [베다니 목요일 시니어 센터]**

- ▶ 기간: 3월 13일 ~ 6월 5일, 매주 목요일, 총12주간 (4/17 고난주간 휴강)
- ▶ 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2시 (중식 제공)
- ▶ 장소: 베다니 장로교회 본당 및 제 2교육관
- ▶ 주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 ▶ 문의: 신창기 장로 (240-550-4887), 홍석용 목사 (301-670-1200)
- ▶ 과목:
  - 문화 - 소설, 바둑, 장기, 미술, 서예
  - 디지털: 스마트폰 반, 컴퓨터 기초, 핸드폰 셀프사진 및 유용한 앱 배우는 반
  - Study: 기초영어반, 시민권 신청, 선교학교
  - 음악: 장구반, 음악반, 하모니카, 기타, 우쿨렐레
  - 운동: 고전 무용, 태권도, 타이치 체트, 라인댄스, 에어로빅
- \* 과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유익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진행 일정:
 

- 10:30 ~ 11:15 / 찬양 및 예배(특강)
- 11:15 ~ 12:00 / 점심 식사
- 12:10 ~ 1:00 / 1교시, \*1:10 ~ 2:00 / 2교시

▶ 등록비: 무료

▶ 라이드: 실버스프링 롯데, 레저월드, 코리안 코너, 화개장터, 게이더스버그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2025년 봄학기 [베다니 토요일 남성 모임]**

- ▶ 기간: 3월 15일 ~ 6월 7일,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총12주간 (4/19 고난주간 휴강)
- ▶ 주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2H Life)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 ▶ 목적: 지역 사회 한 영혼을 주님께로
- ▶ 프로그램:
  - 골프: 강승룡 집사
  - 탁구: 양을동 집사
  - 등산: 박성준 집사
  - 성경공부: 안현웅 장로
  - 북클럽: 최용욱 집사
  - 에어로빅: 홍금숙 집사
  - 바둑: 장기반: 김정소 집사
  - 핸드댄스(가전-에어컨 기초): 홍성천 집사
- ▶ 문의: 신현덕 목사 (301-201-0611)

**베다니 장애부 주일예배**  
(With Special Ministry Worship Service)

- ▶ 시간: 매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부모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합니다)
- ▶ 장소: 베다니장로교회 제 2 교육관 1층 장애부 예배실
- ▶ 장애부 가족초청: 장애인 여러분을 예배에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 ▶ 장애인 보호자 분들은, 장애 학생을 맡겨 주시고 본당 예배에 참여하신 후 다시 오셔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 ▶ 장애인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대면예배와 ZOOM으로 동시에 진행 됩니다.
- ▶ 문의: 이재백 집사 (240-449-0898)  
신현덕 목사 (301-201-0611)

**2025년 봄학기 베다니 한글학교 학생 모집**

- ▶ 기간: 1월 18일 ~ 5월 3일 (매주 토), 총 15주
- ▶ 시간: 9:30am ~ 12:30pm
- ▶ 대상: 3살 ~ 12학년 (고등학생)
- ▶ 등록금: \$220
- ▶ 수업내용:
  - 1교시 & 2교시: 한글수업
  - 3교시 특별활동: 한국 전통 문화 및 동시, 미술, 음악, 체육, 종이접기
  - 전체행사: 추석 및 한글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등록문의: 윤연미 (교장)  
전화: 240-481-8065 / 이메일 ymkang89@yahoo.com

**베다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영진 T.(301) 670-1200 |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 www.bethanyusa.org

# 유명 한인 셰프 대표 메뉴 전국 1800개 타깃서 판매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수상자 셰프 앤 김, 협업 제품 선보여 피자 4종, 한식 에피타이저 3종



타깃 홈페이지에 소개된 앤 김 셰프와 제품들.

[타깃 홈페이지]



유명 한인 셰프 앤 김(사진)이 만든 피자들 이제 대형 소매 체인 타깃(Target)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타깃은 자체 브랜드 '굿 앤 게더 콜라보레이션(Good & Gather Collabs)'을 통해 유명 셰프들과 협업한 글로벌 푸드 라인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첫 번째 파트너로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James Beard Award)'를 수상한 바 있는 앤 김 셰프를 선정했다. 협업 제품은 오는 9일부터 전국 1800개 타깃 매장의 냉동식품 코너에서 판매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4종의 냉동 피자(각 7.99달러)와 3종의 한식 스타일 에피타이저(각 6.49달러)로 구성된다.

피자는 ▶피클 파이 ▶4가지 치즈로 구성된 스위트&스파이시 칠리소스 ▶스파이시 소시지&스위트 페퍼 ▶태번 스타일 페퍼로니&할라피뇨 등 화덕 피자 4종으로 출시된다. 에피타이저는 ▶불고기 미트볼 ▶콘치즈 화이트 ▶김치 만두 등 한식을 접목한 메뉴들로 구성됐다.

김 셰프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영 조니', '피자리아 롤라', '헬로 피자' 등을 운영하며 독창적인 피자 메뉴를 선보여왔다. 특히 이번에 타깃에서 출시되는 '피클 파이(Pickle Pie)'는 김 셰프의 대표 메뉴이기도 했다. 피클 파이는 랜치 소스, 오이 피클, 바삭한 감자칩을 얹은 피자다. 미네소타주 명물인 튀김 피클에서 착안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도 그의 개성 있는

요리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셰프는 "어릴 적 한국 음식이 낯설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꼈지만, 이제 전국 소비자들이 한국적 감각이 담긴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특히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에피타이저를 타깃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타깃 측은 "김 셰프의 다양한 요리 스타일과 한국적 감각이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셰프는 2019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에서 '중서부 지역 최고 셰프'로 선정됐다. 또한 넷플릭스 푸드 다큐멘터리 시리즈 '셰프의 테이블'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강한길 기자

# PCI '브릿지 어워드' 시상식 성황

<퍼시픽 센추리 연구소>

미셸 스틸 전 의원 (개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단체)  
소수계 권익·교류 증진 공로

취임 직후 '모든 인도적 체류 허가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약 53만명의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체류 허가가 취소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체류 허가가 박탈된 이민자들은 신속히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4월 중 약 24만명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쟁 발발 후 미국으로 도피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른 시일 내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두고 충돌을 빚기 전부터 계획했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각국에서 180만명 이상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취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EU 특별정상회의를 가졌다.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 추가 지원과 함께 별도의 원조 패키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참석해 EU 지도부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쟁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와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EU는 정상회의에 앞서 약 8000억 유로(약 8632억 달러)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놨다.

장운서 기자



베벌리힐스 호텔에서 열린 PCI 브릿지 어워드 시상식에서 미셸 스틸(맨 왼쪽) 전 연방 하원의원과 강경화(맨 앞)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 아마존 배달 기사 잇따 성폭행 체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중인 20대 아마존 배달 기사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글렌데일경찰국은 글렌데일 지역 아마존 배달 기사인 페르난도 바레토-에르난데스(24)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바레토-에르난데스는 지난 1월 글렌데일 지역 브랜

드 블러바드와 체비체이스 드라이브 교차로 인근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레토-에르난데스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아마존 소포를 배송하던 도중 한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아마존 측은 "그는 아마존 직원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외부 업체 소속 배달 기사"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아마존, 아마존 플렉스, 페덱스 등 여러 배송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 (818)548-3106

강한길 기자

# 美서 테슬라 4대에 또 불 테슬라 범죄 연일 발생

미국에서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애틀에서 또다시 테슬라 사이버트럭 4대가 동시에 불타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시애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다운타운 남부(SODO)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 사이버트럭 4대에 불이 붙었다.

이 주차장은 테슬라 매장이나 구매자들에게 신차를 배송하기 전에 일시

적으로 보관해두는 장소여서 사이버트럭 외에도 전기차 5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발화 직후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불이 붙은 사이버트럭 4대는 심하게 그을리고 파손됐다.

시애틀 소방국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사건을 '테러'로 단정하는 다른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의 계

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엑스 사용자는 "테러: 다수의 민주당 비영리단체(NGO)들이 테슬라 매장, 직원, 차량에 대한 공격을 조직해 왔다. 지난밤에는 사이버트럭들이 시애틀에서 불탔다. 민주당의 폭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래 미국에서는 머스크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화, 총격 등 여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 하청업체 한인 인부 중상 현대차·LG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공사 현장에서 한인 인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브라이언 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EMS)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설명을 종합하면 3일 오후 7시15분쯤 부지 내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한인 남성이 크게 다쳤다. 부상

원인과 작업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부상자는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 나온 뒤 사바나 메모리얼 메디컬센터에 헬기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앙카 존슨 HMGMA 대변인은 7일 본지에 "공장 부지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이 건설 중이지만 메타플랜트와 무관한 별개의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50%씩 지분을 갖고 합작 법인을 세운 뒤 올해 가동 목표로 배터리셀 공장을 짓고 있다.

장채원 기자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신, 권리는 차별화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7 ~ 4/11 → 전화 예약 필수!**

**구인**

- 애난데일 사무직원 구함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 분)
- Billing Coordinator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미국 우크라이나 어려운 일할 준비돼야

### 2014년 수준 영토회복 불가

마코 루비오(사진)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는 내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방어 관련된 (군사) 정보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광물 협정이 11일 회의에서 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NYT는 11일 회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공중 및 해상에서의 휴전 구상과 관련,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양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양보하기 전까지는 휴전하거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은 현 상황에서 어떤 군사적 해결 방안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러시아군을 2014년 이전 당시 위치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 조용히 내조하던 우샤벤스 ‘세컨드 레이디’ 공식역할 시동

### 토리노 스포셜올림픽 개막식 참석 남편과는 예일대 로스쿨서 만나



벤스 미국 부통령과 우샤벤스 여사

남편의 취임 이후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JD 벤스 미국 부통령의 부인 우샤 벤스 여사가 공개 활동에 나섰다. 9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우샤 벤스 여사는 전날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막한 동계 스포셜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스포츠올림픽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로, 우샤 여사는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7주 만에 첫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남편인 벤스 부통령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를 비난하며 트럼프의 이른바 ‘투권’으로 떠오른 것과 대조적으로 그동안 우샤 여사는 매우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인들은 우샤 여사를 배려심 있고 영리하며 결단력 있다고 평했다고 CNN은 전했다.

39세인 우샤 여사는 트루먼 행정부 이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유색인종 ‘세컨드 레이디’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교외에서 태어나 자란 우샤 여사는 명문 예일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유학해 장학생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벤스 부통령과는 2013년 예일대 로스쿨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토론 동아리에서 ‘미국 백인의 쇠락’이란 주제를 다루며 처음 인연이 닿은 두 사람은 이

듬해인 2014년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다. 우샤 여사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지금은 연방대법관이 된 브렛 캐버노 판사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데 이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는 등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커리어를 쌓았다.

2015년부터는 로펌 ‘멍거툴슨앤웬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나 남편이 트럼프의 대선 러닝메이트가 되자 변호사 일을 접고 내조를 시작했다. 우샤 여사는 작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남편이 가장 강력한 아메리칸드림의 예라면서 “JD와 내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위대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남편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남편에게는 자기 말을 똑바로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남편은 내가 하는 말을 진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고, 이는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된다”고 했다. 다만, 이제 막 공식 행보를 시작한 그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는 작년 10월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세컨드 레이디로서의 목표나 관심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 중국이 미국 농·축산물에 관세 집중하는 이유는

### “중국 경기 둔화에 공급 과잉”

중국이 미국 등과의 관세전쟁에서 농축산물에 보복 관세를 집중적으로 부과한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 식량이 공급 과잉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에 대한 관세를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각각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저비용 고효율 무기’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10+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2차 대응 성격이다.

중국은 앞서 캐나다가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일부 캐나다 농수산물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이를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캐나다산 유채씨 오일과 완두콩 등에 대해서는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전쟁에서 중국의 반격이 식량 분야에 집중된 것과 관련,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식량자급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주요 식량 공급국이지만,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전쟁 이후 브라질 등으로 공

급선 다변화에 나섰고 이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 식량이 남아도는 상황이며, 국내 과잉 공급에 대한 대처가 더 시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물가가 3.3% 떨어져 하락세가 가팔랐다.

중국 밀 가격은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옥수수 수입도 급락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무역회사들에 보리·수수 등의 해외 수입을 제한하고 대두 수입 물량 수송은 미루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올봄 지나면 라니냐 물러갈 듯

### 온난화는 가속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짧

은 기간 지속하다 올해 여름이 오기 전 물러갈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최근 예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생한

라니냐가 올해 3~5월 소멸하고 중립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60%에 이른다. 올해 4~6월에는 이 확률이 70%까지 증가한다고 WMO는 설명했다.

라니냐가 2020년 9월 발생했을 당시에는 3년간 지속됐으나 이번에는 기

간이 짧아졌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낮아지는 엘니뇨와 반대 현상이다.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라니냐 시기에 유라시아와 북미 지역

은 기온이 높고 서부 유럽과 호주는 기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동남아시아와 호주, 남미 북부 지역의 강수량은 라니냐로 인해 많아지고, 미국 남동부 지역에선 반대로 적어지는 사례가 많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용자의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전세계 관심사 그린란드 총선... '트럼프 눈독' 국론 시험대

인구 5만6천명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총선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편입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가운데 독립을 둘러싼 그린란드 국론의 향방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11일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단원제인 그린란드 의회 31석을 두고 총 6개 정당 소속 후보 213명이 출마했다. 연립정부를 이끄는 '이누이트 공동체당'(IA)의 무테 에게데(사진) 총리는 연임에 도전한다. 그린란드 선거는 유권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사전 여론조사도 부족해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

이 있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기관 베리안이 유권자 4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에게데 총리의 IA를 지지했다. 2위는 연정 파트너인 전진당(Siumut)으로 22%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은 에게데 총리가 지난달 초 "내부 분열이 아니라 협력하고 단결할 때"라며 4월로 예정된 선거를 앞당기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겠다고 거듭 압박하자 의회 재장악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한편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1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인의 85%가 미국 편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도 높은 편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에게데 총리는 총선을 하루 앞둔 이날 덴마크 공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나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라며 "우리의 미래는 그린란드 안에서 우리에게 의해 결정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하자 공화당원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상당수 그린란드인은 이를 '조롱'으로 여겼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일부 정당을 제외하면 대체로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지지하지만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있다.

IA는 덴마크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춰야 완전한 독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기적' 독립을 지지한다. 전진당은 총선 이후 독립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방향당(Naleraq)은 독립을 지지하는 동시에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경제가 덴마크에서 받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탓에 실질적 독립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한다.

이에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덴마크 상대로 한 협상 카드로 활용, 관계 재정립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 미국특사, 사우디 우크라 회담 하루 앞두고 "상당한 진전 기대"

우크라 안보·정보공유 등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사진) 특사는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라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 테이블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절차(security protocol), 영토 문제, 유틸리티(utility-전기, 가스 등)

계획 등이다"라면서 "이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치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협할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저는 이를 진전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면서 "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보 공유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필요로 하는 방어와 관련한 정보는 결코 중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무조건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에 따라 당일 체결될 예정이었던

광물협정이 불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정보 공유 등을 중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충돌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했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광물협정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상에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위트코프 특사 등이 참석한다.

## 북한 해킹조직, 14억6000만 달러 이더리움 탈취

지난달 2위 거래소 바이비트 공격 전문가 "무기 개발에 사용 가능성"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탈취한 14억6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중 최소 3억 달러를 현금화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자루스는 지난달 21일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공급업체를 해킹해 이더리움 40만1000개를 탈취했다. 바이비트의 폴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돼 있던 이더리움을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을 노렸다. 바이비트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해 이더리움을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라자루스 소유의 지갑으로 흘러갔다. 암호화폐 보안업체 엘립틱에 따르면 역대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사건 발생 후 바이비트는 현상금을 걸고 도난당한 이더리움의 현금화 차단에 힘썼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4000만 달러의 자금을 찾아내 거래를 동결했다. 하지만 현금화를 완벽히 막진 못했다.

피해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바이비트 측은 탈취당한 암호화폐의 약 20%는 추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나머지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과 자금 세탁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톰 로빈슨 엘립틱 공동 창업자는 "북한이 암호화폐 세탁에 가장 능숙하다"며 "자동화된 도구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하루 24시간 가까이 일하며 현금화한 자금을 군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을 풍자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니 픽처스를 공격했다. 2017년엔 '워너크라이'란 랜섬웨어를 전 세계 150여 개국 20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감염시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8년 라자루스의 북한 해커 박진혁을 공개 수배했다. 5년 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을 통한 자금 탈취에 집중하고 있다.

암호화폐 탈취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해 외화를 버는 주요 수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3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은 3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 북,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

한·미 연합훈련 반발

북한이 올 상반기 한·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 첫날인 10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됐으며, 사거리 300km 이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이라고 한다.

북한의 이번 CRBM 발사는 기본적으로 FS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날 오전

FS를 '위협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5일과 지난달 27일에도 순항미사일을 쏘며 저강도 도발에 나섰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대북 제재상 금지돼 있는 만큼 노골적 대미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 장소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군 당국이 CRBM 발사 장소로 지목한 황해북도 황주군에는 한국 수도권과 비무장지대(DMZ)에 가장 가까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삭간물 기지가 있다.

이에 북한의 이날 CRBM 도발은 김정은이 지난해 8월 CRBM '화성-11라'형의 발사 플랫폼으로 추정되는 TEL 250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공언한 것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 로고스 법률 그룹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Jiyoun Kim, Diane Lee, Jimmy Park, Sam Kim, Joy Lee  
세플먼트팀: Sammie You, Sook Kim

### 비즈니스 / 부동산

- 비즈니스 설립 / 매매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라이선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십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 리커 라이선스 위반 재판

###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NIW 웨이버 / Hardship Waiver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법정 상속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플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 703-621-7117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48 Ellicott Center Dr. #103, Ellicott City, MD 21043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er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시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Wonderful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3/17~3/29 12박13일 \$5,4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3/17~3/24 7박8일 \$3,190+항공  
**페루 일주**  
3/23~3/29 6박7일 \$2,990+항공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4/14~4/20 6박7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1차** (대진)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4/22~5/2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대진)  
4/30~5/6 6박7일 \$2,9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대진)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대진)  
5/5~5/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5/13~5/23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아이슬란드 일주**  
6/3~6/11 8박9일 \$5,6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여름방학 특선)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6/28~7/5 7박8일 \$2,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6/30~7/3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8/21~8/31 10박11일 \$2,880+항공/오션뷰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2,590(항공포함/가려진 발코니)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17~10/26 9박10일 \$2,990+항공/부타-인사이드 \$3,490+항공/부타-오션뷰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30 9박10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일본 크루즈** 11/3~11/14 11박12일 \$2,490+항공/부타-인사이드 \$3,490+항공/부타-오션뷰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나이산)**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12/23~12/29 5박7일 \$2,490+항공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3/17~3/29 | 12박13일 \$5,490+항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3/17~3/24 | 7박8일 \$3,190+항공

**페루 일주**  
3/23~3/29 | 6박7일 \$2,990+항공

**Wonderful TOUR**  
원더풀 전문 에이전트  
레나고 윤태웅 그레이스조 세라강  
애난데일 미세스신 케이트킴  
센터빌 엘렌리 켈리서  
엘리콧시티 홍수향 해나문

**정통 서유럽**  
1차 4/23~5/03 2차 5/20~5/30  
3차 7/08~7/18 (여름방학 특선)  
4차 9/09~9/19 5차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그리스 & 튀르키예**  
1차 5/6~5/16 2차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5/13~5/23 2차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옐로스톤**  
1차 5/23~5/26 (메모리얼 특선)  
2차 6/30~7/03 (독립기념일 특선)  
3차 8/29~9/01 (노동절 특선)  
3박4일 \$1,290+항공

**아이슬란드 일주**  
지구상의 최북단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투어는  
빙하와 화산과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투어로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6/3~6/11 | 8박9일 \$5,690+항공

**북유럽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까지 보는 최고의 일정  
1차 6/24~7/4 2차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캐나다 록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캐나다!!  
1차 6/25~6/30 (독립기념일 특선)  
2차 8/08~8/13 (여름방학 특선)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믿고 떠나는 실속 있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여행을 떠나보시죠.  
6/28~7/5 | 7박8일 \$2,990+항공

**알래스카 일주**  
전 세계에서 하루가 멀어 멀어 사라지는 곳  
미국에서 가장 신비한 마력을 가진 미지의 땅 알래스카!  
8/14~8/20 | 6박7일 \$2,990(항공포함)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9/30~10/13 | 13박14일 \$4,590+항공

**인생 버킷리스트 2025 크루즈**  
NCL NORWEGIAN CRUISE LINE  
**아이슬란드 & 그린란드**  
8/21~8/31 | 10박 11일 \$2880 (+항공/오션뷰)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 오키나와, 가고시마, 나가사키)  
11/3~11/14 | 11박 12일 \$2490 (+항공 부타-인사이드)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알래스카**  
9/8~9/15 | 7박 8일 \$2190 (항공포함/인사이드), \$2590 (항공포함/가려진 발코니)  
**지중해** (바르셀로나 내륙관광 포함)  
10/17~10/26 | 9박 10일 \$2990 (+항공 부타-인사이드), \$3490 (+항공 부타-오션뷰)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3-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1차 4/15~4/25 2차 4/22~5/2 3차 6/17~6/27 (영어) 4차 9/16~9/26  
5차 10/14~10/24 6차 10/21~10/31 7차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 \$2990+항공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전주 안옥마을 라안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안호텔/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서울/전주/담양 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 정동진/강릉/속초 제주(옵션)  
**Together in Korea**  
6박 7일 내륙 \$1,499+항공 / \$1,699+항공  
3박 4일 서남권 \$829+항공 / \$929+항공  
4박 5일 동해안 \$989+항공 / \$1,119+항공  
3박 4일 제주도 \$549+항공 / \$749+항공  
6박 7일 제주·동해 \$1,549+항공 / \$1,879+항공  
5박 6일 전국일주 \$1,109+항공 / \$2,599+항공  
**동남아 여행**  
3박 5일 방콕/파타야 \$490+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690+항공  
3박 5일 대만 \$450+항공  
3박 5일 나트랑/달랏 \$450+항공  
3박 4일 대만 \$690+항공  
3박 5일 싱가포르 \$850+항공  
**일본 여행**  
3박 4일 동경 \$1,149+항공  
3박 4일 오사카 \$1,149+항공  
5박 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 / 여 \$1,660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미국적) 남 \$720 / 여 \$770  
현대삼성병원/서울대병원/가려진 발코니

**성급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출발: 3/20, 4/3, 4/10  
5/1, 5/8, 5/15 \$199

**당일 투어 체리 브로섬 런치 크루즈**  
3/27, 4/2 \$189  
**벚꽃길 투어** 3/28, 4/3, 4/4 \$45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플래츠버그/뉴욕 로 맨티시티 겨울 낭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설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키아파트 스위트 특선(옵션)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사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8박 9일 \$1540+항공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넌까지 일찬 여행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넌+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79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5/23, 7/4, 8/29)  
탑여행사 TOP TRAVEL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웰빙모아 Wellbeing More

## 봄맛이 특별세일

여성의류, 극세사 이불, 모자, 가방, 내의, 강아지옷, 이불, 소품

### 침구세트 세일 20% off

사계절 면이불 • 베개 • 이불패드

가을, 겨울옷  
신상  
대량입하!



### 공진단 • 침향환 특별세일

<div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 할인</div>  <p><b>종근당 침향환 프리미엄</b></p> <p>침향은 나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성되는 천연 수액년간 굳어져 만들어진 귀한 원료로 세계 3대 항 종 유망한 식물 원료입니다. 종근당 영동 침향보완은 이 귀한 침향의 함량을 22%로 만들었습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 할인</div>  <p><b>김소형 침향환 녹용</b></p> <p>침향분말 22% 함유 16가지 건물 원료(오가피, 홍나무잎, 참외, 참양귀, 천궁, 감초, 작약, 황금, 건조차가비섯, 사향보완, 녹용, 홍삼, 황갈매리, 산삼배양근)와 침향 2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p>	<div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 할인</div>  <p><b>광동 침향환</b></p> <p>광동이 자체연구를 통해 얻은 황금비율 배합으로 18단계 원료 품질 검증 17단계 생산공정, 511가지 원료 품질 규제 검사, 10단계 완제품 품질 검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 할인</div>  <p><b>천호식품 천진단</b></p> <p>침향환 다스리는 힘 귀한 천진단은 정경차에 녹용, 엘드산 녹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침향, 산수유, 참양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 할인</div>  <p><b>광동 경옥고</b></p> <p>동양보건의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인삼, 복령, 생지황, 꿀 등 엄선된 약재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삶아 98도에서 120시간(5일)을 끓여는 종속과정을 통한 노력과 정성을 담아 만든 한방 영양제입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 할인</div>  <p><b>황실의 보약 산삼 공진단</b></p> <p>사향/ 산삼/ 녹용/ 당귀/ 산수유</p>
---	---	---	---	---	--

**풍기홍삼 직영점 입점기념 스페셜 세일**

 <p><b>홍삼정완골드</b></p>	 <p><b>6년근 홍삼분말</b></p>	 <p><b>풍기진 홍삼액골드</b></p>
 <p><b>홍삼액수</b></p>	 <p><b>6년근 봉밀홍삼절편</b></p>	 <p><b>홍삼정 올데이</b></p>
 <p><b>산삼 배양근</b></p>	 <p><b>건삼</b></p>	 <p><b>녹용홍삼</b></p>
 <p><b>고려태극삼</b></p>	 <p><b>황풍정 식류 홍삼 클라겐</b></p>	 <p><b>고려 홍삼차</b></p>

**종근당**

 <p><b>홍삼 마일드</b></p>	 <p><b>전립센</b></p>
 <p><b>LACTO FIT 락토피트 생유산균</b></p>	
 <p><b>아이클리어</b></p>	 <p><b>홍삼스틱</b></p>
 <p><b>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b></p>	

**천호식품**

 <p><b>함께 먹어 더 좋은 녹용 홍삼</b></p>	 <p><b>목 건강을 위한 도라지 200</b></p>	 <p><b>남자한테 장좋은 미는 산수유</b></p>
 <p><b>생물활력 있어 그대로 진한 식류</b></p>	 <p><b>매일매일 활기있게 민들레와영양귀</b></p>	 <p><b>남자한테 맛있는 흑마늘 진액</b></p>
 <p><b>양배추 주스 100 프리미엄</b></p>	 <p><b>천진단</b></p>	

 <p><b>행복한 양배추즙</b></p>	 <p><b>행복한 도라지배즙</b></p>	 <p><b>행복한 자색양파즙</b></p>
--	---	---

 <p><b>우미노시즈쿠 후코이탄</b></p>	 <p><b>능협 홍삼, 녹용, 산수유, 흑마늘, 도라지, 배즙</b></p>	 <p><b>원근, 항산화효과 프로폴리스</b></p>	 <p><b>MSM+활력의 만능 포스트신바이오향완원</b></p>
 <p><b>포스트신바이오프로바이오틱스</b></p>	 <p><b>플레티널 알티지 오메가-3</b></p>	 <p><b>관절 및 연골 건강 하이델 프리미엄 총합 12000</b></p>	 <p><b>종년 꿀밤 미니 압력솔</b> 종년 꿀밤 옛종 미니 압력솔으로 손드레 솔밭을 6분 30초만에 똑딱!</p>
 <p><b>홍쌍리 정매실원</b> 50년 이상된 전통참이리에 넣어 발효숙성한 매실원액</p>	 <p><b>우메틴 전제품</b> 식류, 제철액기스, 발효미네랄, L-활효</p>	 <p><b>모다모다 샴푸</b> 자연의 힘과 정성을 담은 당 4주 샴푸 사용으로 세지 케어를 만나세요!</p>	 <p><b>메디테라피 온열돌 힐링 솔루션</b> 불이는 릴렉스 팻 볼도 들고있고 발바닥도 안아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메디테라피, 근육통, 생리통</p>

 <p><b>바누 저당밥솥</b></p>	 <p><b>신일 롤링스텐 스팀 청소기</b></p>	 <p><b>바누 다기능 티팟</b></p>	 <p><b>누리아이 5800</b> 눈안마 눈안마기</p>	 <p><b>다기능 디지털 우퍼 스피커</b> 효도 라디오</p>	 <p><b>NUC 만능분쇄기</b></p>	 <p><b>발효누룩지제라기</b></p>	 <p><b>메디테라피 온열돌 힐링 솔루션</b> 불이는 릴렉스 팻 볼도 들고있고 발바닥도 안아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메디테라피, 근육통, 생리통</p>
---	--	---	--	--	---	--	--

**한미우제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p><b>애난데일점 (703) 256-5500</b>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p>	<p><b>센터빌점 (703) 830-7755</b>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p>
--	--

**영업시간**  
9:30am ~ 7pm  
(365일)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여당,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야당,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  
민주당 “검찰이 윤 석방 빌미 줘”

국민의힘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검사 생활 30여 년 하면서 공수 처처럼 이런 무도한 기관은 처음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인식이 여당 강경론에 투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권 위원장은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삼았다”며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



심우정

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논란을 다시 제기했다.

강경 기류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했던 공수처를 타깃으로 했다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을 맹공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5당은 “심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을 향의 방문해 “검찰총장은 불필요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끈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취소 결정의 빌미를 줬다”며 심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수 진영 결집에 ‘광장 여론전’으로 맞붙을 내놓는 셈이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 지사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9일부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거세지는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재 탄핵 선고가 나기 전까지

### 여야 수사기관 고발전 양상

여당		야5당	
오동운 공수처장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찰청	고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불법 체포·구금”	고발 배경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줘”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중안강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주요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 불법지시 등 직권남용, 직무수행 방해	

는 양측의 결집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대통령리더십연구원은 “여야가 공수처와 검찰을 각각 타깃 삼은 것처럼, 지지층의 분노를 최대한

끌어올려 분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 일으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정·박태민·조수빈 기자**

## 헌직판사 “윤 구속취소 유감”...검찰 내부선 ‘즉시항고 포기’ 비판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10일 나왔다.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은 수

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 왔다”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은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구속기간과 체포적부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 포기를 문제 삼았다.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채수양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현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

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검찰 조직 전체가 구속기간 해석 및 즉시항고 포기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전날 이프 로스를 통해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양수민 기자**

## “이미 대선 시작한듯 방심했다” 허짚린 민주당 자성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수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금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소추가 인용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수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미 기소한 기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혐의로 인한 구속 필요성이 생겨야 가능하지만 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10일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는 헌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외엔 불소추특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과 별개로 수사 역량이 있느냐도 문제인 공수처가 추가 혐의를

수사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가 법정 구속할 리도 없다”며 “파면돼야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여지가 생긴다”고 내다봤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선 “왜 아무도 석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나”라는 자성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 울산 출신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현재에서 파면 당하고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이뤄질 거라고 방심했던 것 아니냐”며 “탄핵 심리가 국회 소추위원단의 참여로 쟁점 정리와 모니터링이 면밀히 됐던 것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예상 밖 사태를 맞아 사후적으로 수습책을 구하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을 법원이 내렸고, 천대엽 범법행정처장도 영장의 적법성을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지난 1월 천 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적합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말한 게 당 전체가 낙관론에 빠지게 된 게 기였다는 것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미 대선이 시작된 것처럼 방심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현재를 향해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도 이 같은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중진 의원)이라는 현실 인식과 “김 여사 구속이 더 빠를 수 있다”(조선 의원)는 판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추가 최종 시한”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개 압박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이세훈 금융감독원 부원장과의 면담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새롬·김나한 기자**



##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윌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 윤 석방에 여야 충돌 ... 연금개혁·추경도 다시 멈춰섰다

### 여야 국정협의 30분만에 빈손 종료 “도저히 못 받아” “처음으로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그간 양측이 접점을 만들어가던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국정협의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협의회는 30분여분 만에 끝났고, 결과는 또 빈손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를 먼저 박차고 나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6일)에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애초에) 자동조정장치를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소득대체율을 (43%)로 다시 이야기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은 44%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6일만 해도 양당은 연금개혁에 접점을 찾은 듯했다. ‘내는 돈’인 보험

료를 13%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가입자 수·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허들을 낮췄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던 민주당은 여당의 43% 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기존 입장으로 재선화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지의 문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정쟁이 정책까지 집어삼켰다는 얘기다.

추경 편성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회동에서 “추경의 필요성엔 양당이 공감한다”고 했지만 더는 진전이 없었다. 이날 민주당은 여당에서 구상하는 추경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여야가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는 이미 여야 대표 간 고

공 합의가 된 거로 보아 따로 여야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날 이를 전격 수용했다. 그런데 10일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호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앙일보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상속세 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양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성지원 강보현 기자

## 14일 걸렸던 노무현 탄핵선고 ... 윤 탄핵, 이미 그 시간 넘어서

### 윤 석방 뒤 속도보다 절차 부각 학계 일각 “선고 더 밀릴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 14일, 11일 후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을 강조해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0일 기준으로 변론 종결 후 13일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고민

을 이어가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걸린 시간을 넘어서었다. 선고기일은 사전에 고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현재가 이날도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11일 선고 가능성도 없어졌다. 노 전 대통령 사건 결정에 걸린 시간도 넘어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속고 시간 기록에 들어서게 됐다.

현재는 이날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공지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기존 입

장만 재공지만 후 침묵을 이어갔다.

현재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점은 선부른 선고기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됐다. 취소 사유인 ‘위법 기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적법성 의문’ 자체는 “탄핵심판과 무관해 범죄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이런 결론을 도출해낸 배경으로 절차적 공정성도 부각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초기부터 여러 차례 절차적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속보단 공정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현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대통령 직접신문 금지 등에 “위법”이란 표현까지 쓰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현재는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대부분 주장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들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법 40조 1항)는 규정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는 헌법재판으로서의 성질이나 재판관의 소송지휘권을 더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헌

재가 소송지휘권 등 재판관 고유 권한만 강조하며 속도를 내기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탄핵심판)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권성동 원내대표)고 압박 중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심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취소가 탄핵 본안 쟁점과 관련이 없어 변론 재개는 안 할 것 같다”면서도 “생각하기를 갖는 차원에서라도 선고는 이번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준영 기자

## 선관위, 전 사무총장 아들 위해 면접관 교체 ... 채용 뒤엔 월세도 내줬다

(김세환)

### 김세환, 선관위에 “면접관 바꿔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아들 김보씨가 2019년 11월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면접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 면접위원이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아버지가) 누구겠어”라고 동료 면접위원에게 말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었다.

10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면접위원이 된 전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A씨가 이런 말을 해 김씨가 최종 합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당시 인천선관위가 경력 경쟁 채용(경채)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경채 계획이 공고되기 전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이던 B씨에게 전화했다.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달라”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

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B씨에게 “A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B씨는 A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면접위원에서 빼졌다.

공소장에 김씨가 거주한 오피스텔의 월세를 인천선관위가 낸 사실도 적시

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선관위 총무과장과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아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지시했고, 김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20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선관위 총무과는 김씨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 다시 계약서를 썼다.

윤성민 기자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 2024

# A

# Return

T
X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벽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자영업자 두달새 20만 ↓ ... 내수절벽에 문 닫는 가게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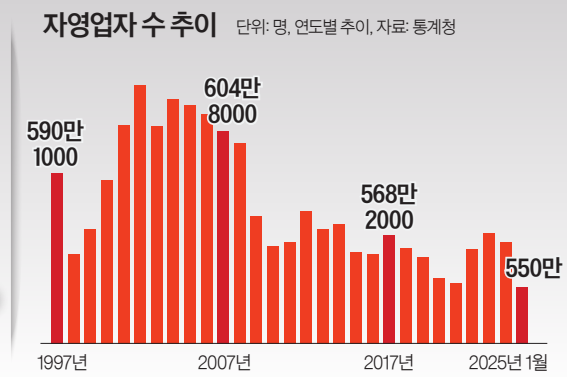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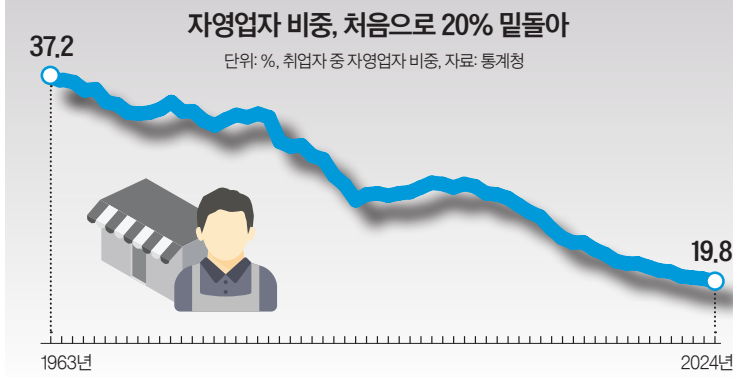
(계절 변수 포함)

자영업 비중 19.8%, 사상 첫 20% 밑  
"다른 일 찾게 돕는 맞춤형 지원 필요"

2022년부터 중소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해 온 권모(48)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다. 2012년 피자 가게를 시작한 그는 코로나19 위기도 견뎠다. 이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카페를 열었지만, 지금은 매달 500만~7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 '나를 믿고 차려라, 대박 날 것'이라며 가게 위치까지 정해 줬던 가맹본부(본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권씨는 "일찌감치 폐업했어야 했는데, 2억원 까먹을 것을 3억원 까먹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별이는 쪼그라들고 빛은 불어나며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19.8%를 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올해 1월 취업자(2787만8000명)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7%(550만명)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였다.

크게 보면 한국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기준 통계를 보면 미국(6.6%)·캐나다(7.2%)·독일(8.7%)·호주(9.0%)·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비중은 한 자릿수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사회안전망과 좋은 일자리가 많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이다. 반면에 콜롬비아(53.1%)·브라질(32.1%)·멕시코(31.8%)



등 개발도상국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최근 한국의 자영업 비중 축소는 경제구조 변화보다도 내수 부진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영업은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 상태"라며 "수요가 부족하니 자영업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감소하며 1월을 기준으로 2021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자영업자 규모와 단순 비교하면 20만 6000명(월계열 기준) 적은 규모다. 다만 통계청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엔 농사를 쉬는 농림어업 자영업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비교해도 1월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대비 2만4000명(계절조정계열 기준) 감소했다. 그만큼 빠르게 자영업 경기가 악화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연간 소득을 '0원'(소득 없음)으로 신고한 개인사업

자가 105만5024명, '0원 초과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16만5161명이었다.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 전체의 75.7%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31만1434명 증가한 숫자다.

특히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외식업체 타격이 크다. 지난해 5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카페를 하다 폐업한 박모(35)씨는 "쓰리집"을 하고 있다.

박씨는 "1억원을 받았던 대출 원금이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며 "회사에서 퇴근한 뒤 밤 9시까지 배달, 이

후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업체 체감 경기 지수는 71.52로, 전 분기 대비 4.52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가 100보다 낮다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해당 지수는 2023년 1분기 86.91에서 계속 하락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빚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한국신용데이터(KCD) 최신 집계에 따르면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월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9조3000억원) 대비 30.1% 증가했다. 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사업장 수는 48만5000개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361만1000개)의 13.4%를 차지한다.

전문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관망은 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연착륙을 위한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매판매의 대형화·채널화·온라인화로 자영업의 입지가 줄었다"며 "다시 자영업으로 가지 않고 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양준석 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정책을 썼지만, 이는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살아남기 어려운 곳은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 선별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전민구 기자

## 내수 살리려던 설 임시공휴일, 해외여행만 살렸다

1월 출국 298만명 역대 최대 규모  
1월 국내 소매판매는 더 줄어들어

정부가 지난 1월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부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3% 증가했다. 2019년 1월(293만21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일본 출국이 93만5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44만1189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엔화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환율만 놓고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여행은 더 많이 떠났다는 뜻이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설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이란 카드를 꺼낸 건 소비·관광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해서다. 그러나 카드 매출이 보여주는 결과는 사뭇 다르다. BC카드의 1월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이 100(개인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27일 국내 매출액은 98.0으로 줄었다. 반면에 해외 매출액은 103.4로 늘었다. 평소보다 국내에선 덜 쓰고, 해외에선 더 썼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속보성 통계지표인 나우캐스트를 보면 설 연휴 주간인 1월 25~31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명절 전후 소비는 연휴 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전 명절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재화 소비의 정도를 보여주는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등의 판매 감소가 원인이다. 12월 반짝 상승했지만, 다시 흐름이 꺾였다. 소매판매는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만들었던 지난해 10월에도 0.7% 감소했다.

1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8% 줄었고, 1월 온라인 쇼핑액 역시 4.4%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온라인 쇼핑액은 소비 활력을 따져볼 수 있는 지표다. 전반적으로 광을 제외하면 뚜렷한 내수 반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효과가 있다. 없다 단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되려 '돈 아껴서 해외여행 간다'는 속설은 증명됐다. 지난해 내국인의 국외

소비지출은 3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해가는 흐름이다. 같은 기간 국내 소비지출은 0.7% 증가에 그쳤다. 전체 소비지출의 98%를 차지하는 국내 지출이 7조3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2%에도 못 미치는 국외 지출은 5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의 소비 역시 국내총생산(GDP)상 민간소비를 잡는데 지난해 미약하게 관측된 소비 회복세도 국외 소비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참에 임시공휴일 지정의 정확한 경제 효과를 따져보고, 정책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1610 Westwoodland Ct, McLean, VA	COMING SOON	\$1,999,900	McLean HS 옆, NO HOA, 홈스테이 하기 딱 좋은 집, 방 7, 화장실 5.5, 디자인이러기 설계, 맥클린 다운타운 걸러갈 수 있음, I-66, GW Parkway, 집 앞 버스 정류장 등 교통 편리	NEW
	16309 Sandy Bridges Ct, Woodbridge, VA	COMING SOON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상층층 4/20 마켓에 올리려 예정	NEW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ALE	\$495,000	방 2, 화 2 콘도, 비엔나 메트로 옆 걸러갈 수 있음, Nottaway Park 옆, 집 전체 renovation	
	1474 Hampton Hill, McLean, VA	UNDER CONTRACT	\$1.25M	다수의 오피 빌라 경쟁 시켜서 listing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 no contingency 로 계약 완료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OLD	\$1.2M	마켓에 내 놓자마자 좋은 오피 빌라, 1/21/25 세블먼트 완료	SELL
매매 및 렌트	10** Salt Meadow, McLean, VA	SOLD	\$2.73M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1/21/25 세블먼트 완료	BUY
	사업체 매매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오피 빌라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네 집 살 때 다른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주소	기간	세입자
9411 Myra Dr, Great Falls, VA	NEW	3년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NEW	3년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NEW	2년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2/14/2025 입주	3년
2956 Paddock Wood Ct, Oakton, VA	2/19/2025 입주	2년
2017 Meadow Springs Dr, Vienna, VA	1/31/2025 입주	2+1년
919 Jaysmith St, Great Falls, VA	3/1/2025 입주	2+2년
McLean, VA		3년



그의 30여세 터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 조종사, 표적 확인 않고 “확인”... 투하 뒤 오폭인 줄도 몰라

### 공군, 오폭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 좌표 '5'를 '0'으로 입력해 오폭 프린터 고장나자 대조 과정 생략

지난 6일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일어난 경기도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조종사는 프린터 오류를 이유로 첫 좌표 확인 작업부터 생략했고, 폭탄 투하 직전에는 보지 못한 표적을 육안 확인했다고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군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조종사가 전 임무 과정에 걸쳐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표적을 재확인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KF-16 편조 2대는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해 8발의 MK-82를 투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km 남쪽으로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공군에 따르면 훈련 전날 조종사가 지상에서 비행임무계획장비(JMPS) 컴퓨터에 좌표 등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위도 7자리 숫자 ‘×× 05.×××’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왼쪽)과 공군 지휘부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군은 조사 결과 좌표를 잘못 입력한 1번 전투기 조종사는 실수를 바로잡을 세 번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 00.×××’로 잘못 기입했다. 이들은 해당 임무에서 모두 14개 좌표(한 좌표당 위도 7자리, 경도 8자리), 210개 숫자를 입력했는데, 틀린 숫자 하나가 오폭으로 이어진 셈이다.

또 원래대로라면 JMPS에 입력된 좌표를 즉시 ‘라인업 카드’라는 종이로 출력해 임무 좌표와 대조해야 했다. 하지만 하필 프린터 오류로 출력되지 않자, 조종사는 확인 과정을 건너뛰었다.

두 번째 단계로 JMPS에 입력된 좌

표를 훈련 당일 USB 개념인 비행자료 전송장치(DTC)에 옮겨담아 전투기에 업로드하면서도 1번기 조종사는 대조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이상한 감에는 눈치챘다고 한다. 잘못된 지점으로 선회하다 보니 정해진 탄착시간(TOT: Time on Target)을 맞추기 어려웠다. 그러자 오히려 속도를 높였고, 표적을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사격장

내 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 “표적

확인(Target in Sight)”을 외치고 오전 10시4분 폭탄을 투하했다. 사실상의 허위 보고였다.

그렇게 오폭을 막을 마지막 세 번째 기회도 날아갔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 좋아 얼마든지 눈으로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럴 경우 과감히 임무를 포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DTC 이상으로 전투기에 좌표를 수작업으로 입력한 2번기는 정상 좌표를 찍었으나, 1번기의 카운트가

운에 맞춰 함께 투하했다. 밀집 대형에만 신경쓴 탓으로 공군 측은 파악했다.

조종사들은 폭탄 투하 1분 뒤인 오전 10시5분 중앙방공통제소(MCRC), 공군작전사령부 전술조치관이 ‘탄착 확인이 안 됐다’며 사격 실시 여부를 질문하자 오전 10시6분에야 좌표 오입력을 알아차렸다.

공작사는 오전 10시7분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했지만, 빠른 대응보다는 투하된 폭탄이 공군 탄인지, 육군 탄인지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언론 공지는 오전 11시41분으로, 현장에서 MK-82 폭탄의 파편을 최종 확인한 후에야 이뤄졌다.

공군은 조종사 한 명이 홀로 책임지는 좌표 입력 절차를 교차 검증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곧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한다. 감사원도 곧 올해 정기 감사대상인 공군본부를 감사하며 오폭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근평 기자

## ‘의대 0명 선발’ 의협에 학부모 폭발... “수험생이 무슨 죄냐”

###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 반발 확산 인원 감축 기조에 N수생까지 동요

김택우 대한의사회회 회장의 ‘내년 의대 선발 0명’ 발언이 공개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의대생의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아예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알려지자 고3과 학부모는 물론 의대를 목표로 재수·삼수를 결심했던 ‘N수생’이 동요하고 있다.

10일 수험생·학부모 커뮤니티엔 이날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김택우 의협 회

장의 발언을 우려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는 기성 세대가 왜 수험생 아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느냐”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의협 의사들이나 전공의, 이미 면허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게 없다. 의대생과 수험생들만 피해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

석한 김 회장은 “(26년 0명 모집은)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24·25학년 동시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에는 각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은 작년보다 응시생이 늘어 수험생·학부모가 모집인원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황금돼지띠’(2007년생)로 불리는 올해 고3 학생은 작년(2006년생)보다 약 10% 많은 45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N수생 규모도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20만 2700여명(중로학원 추정)으로, 2001년 이후 최대가 될 것

으로 보인다.

고3 자녀를 둔 서울 서초구의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의대 모집인원을 원복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화가 났는데, 의협 회장 발언에 폭발할 것 같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의협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재수생 자녀를 둔 서울 강남구의 학부모는 “작년에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야 (의대 모집인원이) 1500명 정도 늘어 혼란스러웠는데, 올해도 반복되는 거 아니냐”며 “증원을 받고 (지역인재전형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가거나 고가의 입시 컨설팅을 받은 부모는 무슨 죄냐”고 했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달라지

면 기존 입시 결과나 데이터 분석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입시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수험생들이 각종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테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메디스테프 측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 등을 알면서 지우지 않거나 게시자를 보호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조장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대, 인제대 등의 수업 복귀자 명단이 게재되고 있다며 메디스테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연·채혜선 기자

## 실업급여 신청 25% 급증... 월 지급액도 1조 넘어 역대 최대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 폭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월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1% 급증했다. 건설업(5800명), 사업서비스업(3700명), 제조업(3400명), 도소매업(2400명) 순으로 산업 대부분에서 증가했다. 다만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

과장은 “12월이나 1월에 고용 계약이 종료된 일부 근로자가 구직급여 신규 신청을 설 이후로 미루면서 2월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1~2월 평균으로 보면 증가율은 2%대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시장 악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도 1538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3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3년 ‘카

드대란’ 영향을 받은 2004년 2월(13만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그만큼 취업시장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2월 고용24에 올라온 신규 일자리는 17만3000개,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1000명으로, 구인배수가 0.40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주 기자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난과 란의 법칙**

신문을 꾸준히 읽어 온 애독자라면 “나도 한 번쯤은 신문에 내 생각을 펼쳐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싶다. 이런 생각을 지닌 독자들을 위해 신문에 독자들이 투고한 글을 실는 난(欄)이 있다. 바로 ‘독자 투고란’이다.

여기서 고개를 가웃하는 사람이 있을 듯하다. ‘독자가 투고한 글을 실는 난’을 왜 ‘투고난’이 아닌 ‘투고란’이라고 하는지 의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欄(란/난)’은 ‘구분된 지면’을 의미하는 말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지만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할 때는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난’으로 적는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분하는 법은 쉽다. 앞에 나오는 낱말이 한자어인지, 고유어나 외래어인지 알면 힘들지 않게 구분해 쓸 수 있다.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일 경우 ‘란’, 고유어나 외래어일 경우 ‘난’으로 쓰면 된다.

따라서 ‘투고란(投稿欄)’ ‘광고란(廣告欄)’ ‘비고란(備考欄)’ ‘정치란(政治欄)’ ‘문화란(文化欄)’ ‘경제란(經濟欄)’ 등은 모두 한자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란’이라고 써야 바른 표기가 된다.

‘어린이란’ ‘생각난’ 등은 고유어가 앞에 나오므로 ‘난’으로 적으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미국 전문가들이 본 탄핵정국**



김영남  
사회부 기자

은 한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 계엄령 선포 전에 미국에 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만약 계엄령 선포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됐던 것이라면 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위직 관리, 특히 외교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해답을 꺼렸다는 것이었다. 한 백악관 전직 고위 관리는 “한국의 정치와 계엄이 양국 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외국인인) 내가 그들의 민주주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한국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관리는 탄핵 정국이 영향을 끼칠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다는 듯 “뛰 영향이야 있겠지만, 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30명 이상에게 연락했지만 실제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10명 남짓이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베크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탄핵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양국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을 때도 강한 유대감을 갖지 않았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처럼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지도자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였다.

탄핵 심판은 이르다면 이번 주, 늦으면 이달 말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국이 ‘중립 기어’ 상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앉을 사람을 결정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전환해, 트럼프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달릴길 바란다.

**열린광장**

**단국대 미주 아카데미를 마치며**



송마리  
시인

된다”고 했다. 시인은 ‘나’를 버리는 글쓰기 연습을 3년 동안 하라고 주문했다.

해이수 작가는 첫 강의에서 자신의 에베레스트산 등반과 호주 사막 여행,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가졌던 사색과 독서 등이 자신의 인생과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해이수 소설가는 글을 쓰는 행위가 이미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읽고, 매일 쓰고, 매일 감동 받으려 노력하면, 타인의 삶에 울림이 있는 글을 쓰게 된다고 가르쳤다. 작가가 되겠다는 용기는 매일 쓰겠다는 결심과 훈련, 그리고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사물의 본질을 깨닫게 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6일에 걸친 아카데미 강의는 미주 작가들이느

겨운 목마름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다. 강의는 스파르타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시간 안에 20편 정도의 수필 작품을 읽어내고 평가하는 훈련을 했다. 시는 왜 꼭 12행 내외여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혔냐는 질책을 받으며 30행 이상의 시를 써내라는 과제를 받기도 했다.

오후 내내 강의를 들은 후, 다들 집에 가서 수필과 시를 밤늦도록 써서 다음날 제출했다. 그리고 도마 위의 생선처럼 혹독하게 난도질 받을 각오를 하고 합평 시간을 맞았다. 참가자들은 배움에 진지했다.

미주 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갈망은 6일간의 아카데미 캠프라는 단비를 맞았다. 시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고, 수필의 격을 높이는 싹을 틔웠다. 참가자들이 마지막 날 제출한 작품들은 시작 첫 날에 제출한 작품보다 월등하게 좋아져 있었다.

우리 미주 작가들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스스로의 성장을 목격했다. 우리는 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열정까지 나누어 받았다. 해마다 멀리 귀한 지원을 해주는 단국대학교 미주 아카데미에 깊이 감사한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틴빌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Clifton 상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새입차량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11. 맨틀리 하이 타운 \$599,999 방 3, 화 3.5, 1,980sqft, 데, 워크아웃 지하(방, 풀베스), 50/286
2. 맨틀리 하이 상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7. 맥클린 하이, 러서리게이트 상글 (Evans farm) \$2,425,000 방 5, 화 5, 7,590sqft, 차고 3,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입 디자인	12. 페어팩스 타운 \$800,000 2010년, 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fairOkas mall/50/66/286
3. 맨틀리 하이 상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상당근처, 66/288/50/29	8. 맥클린 하이, 러서리 상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입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펠름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3.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 3, 화 3.5, 차고 1, 연드우닛, 데, 펜스, 퍼펄츠, 센터빌 하이
4. 센터빌 상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슬러 팩넵, 6,228sqft	9. 맥클린 하이 상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입,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펠름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4. 페어팩스 콘도 \$580,000 방 2, 화 2, 차고 2, 엘리베이터, 계단 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 Okas mall, Fair lakes mall
5. 센터빌 상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메인/ 풀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 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워크아웃, 데, 펜스	15. 센터빌 중심콘도 \$460,000 방 2, 화 2, 차고 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s://www.facebook.com/LandBUiversal)

Diaspora Daniel prayer Meetings USA

2025 미주 디아스포라

# 다니엘기도회



2025.3.16<sup>SUN</sup> - 22<sup>SAT</sup> PM 7:30-9:30

장소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15451 Route 29, Centreville, VA 20121 USA



YouTube

다니엘기도회

us.danielprayer.org

Speakers



3.16(주일)

김은호 목사



3.17(월)

선 집사



3.18(화)

사티쉬쿠마르 목사



3.19(수)

손경민 목사



3.20(목)

김진규 감독



3.21(금)

김태훈 선교사



3.22(토)

안재우 소장

WORSHIP · RESTORATION · UNITY



강사 | 주성하 목사

2025 뉴욕 & 뉴저지 청년 다니엘기도회

일시 | 3.14<sup>FRI</sup> PM 7:30 장소 | 뉴저지온누리교회

2025 워싱턴 D.C 청년 다니엘기도회

일시 | 3.15<sup>SAT</sup> PM 5:00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March 11, 2025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소수 정예’ 혹은 ‘다양성 능력’ 중 선택해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미국 학교는 원래 사립에서 시작됐다. 그만큼 뿌리도 깊고 역사도 길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공립 학교나 사립 학교 중 어디에 보낼 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중 어느 곳이 더 나은 지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사립 학교의 학비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어떻게 사립 학교와 공립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할까.

학부모가 공립 학교나 사립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비 이외에도 표준 시험 점수, 학급 규모, 다양성 및 학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당사자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녀의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부모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 공립 학교와 달리 사립 학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사립 학교가 문을 열 때부터 다양하게 시작됐기 때문이다. 일부는 종교 재단에 의해 관리되고 제휴하는 반면, 다른 곳은 특정 철학적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이런 경우다.

**▶미국 현황**  
미국에는 무려 10만 곳의 초중고 공립 학교가 있고 이들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교육구(school district)가 1만3천 곳에 달한다. 아울러 사립 학교도 무려 3만 곳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사립이 드물거나 없을 수 있다. 특정 학년만 사립이 있고 다른 학년에는 사립이 없을 수 있다. 미국 교육통계센터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공립 학교 재학생의 숫



사립 학교와 공립 학교는 학비의 유무를 제외하고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특히 학습 성과, 학급 규모, 다양성 등에서 다르다. [이미지투데이]

**학비 이외 항목 따져 볼 수도**  
**사립 재학생은 공립의 10%**  
**연 학비가 대학 만큼 되기도**  
자는 5080만 명으로 여전히 사립보다 공립이 훨씬 더 많았다. 2019년 가을 학기 사립 학생은 470만 명으로 2017년의 570만 명에 비해 감소했다.

**▶선택 위한 요소**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과 공립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졸업률이나 대학 진학을 같은 교육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교실의 규모가 다음으로 꼽힌다. 공립과 달리 사립은 작은 인원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사의 숙련도도 중요하다. 사립의 경우 경험 많은 교사가 많다. 학비 부담

학년 사립 학생도 평균 점수에서 거의 비슷한 우위를 보였다. ‘전국독립학교협회’(NAIS)는 SAT에서 사립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공립 학생들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것을 발견했다.  
**▶코스 및 수업 규모**  
공립 선택 정보를 얻을 때 학부모는 어떤 종류의 수업을 제공하는지, 특히 고교에서 아너클래스와 AP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를 알기 원한다. 또 학교에 정시에 졸업하는 학생 숫자, 대학 진학생 숫자, 학교의 평균 SAT 및 ACT 점수 등에 대해 문의한다. 이러한 지표는 나중에 성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학급 규모는 또 다른 지표가 된다. 학부모에게 사립의 장점은 학급 규모가 작고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1년 사립의 학생 대 교사 비율은 교사 한 명당 학생 12.5명으로 공립의 평균 15.4명보다 낮았다.  
사립학교 단체인 NAIS는 사립학교의 소규모 학급은 긴밀한 환경을 조성하여 교사가 학생 개인과 그들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소규모 학급은 특정 유형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큰 교실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수줍음이 많거나 수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학생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소규모 학급이 학생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학생 숫자가 12~18명인 학급이 25~35명에 비해 실제 차이는 숫자 말고는 없다는 것이다.

**▶학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립 학생이 SAT나 AP같은 표준시험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경향을 발견했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NAEP)는 수학, 읽기, 과학, 쓰기 등의 과목에서 공립과 사립 학생 모두를 평가한다.  
최근 NAEP자료에서 눈에 띄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립 학생들이 거의 모든 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8학년 사립 학생들은 2022년 NAEP 읽기 시험에서 공립이나 공립 차터 학생보다 평균 2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4

▶2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드(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드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만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 도쿄대 재학생 중 12%가 중국인... 입시 경쟁이 부른 '교육 이민'

지난달 25일 오전 8시.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혼고(本郷) 캠퍼스 정문 앞엔 대입 수험생들로 수백m의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알록달록한 '도쿄대 필승(必勝)' 부채를 든 중국인 유학생과 전문 입시학원 '고치(行知)학원' 관계자들의 모습이였다. 한 중국인 수험생이 모습을 드러내자 선배들은 핫팩을 건네며 중국어로 "긴장하지 마!"라고 외치더니, 이번엔 일본어로 "힘내!"라고 격려했다. 이런 모습을 일본 기자들이 앞다퉀 카메라에 담았다.

부채를 들고 있던 주밍위안(朱明遠·22)씨는 도쿄대 대학원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일본에 왔다. 광둥성의 대학을 졸업한 후, 선배의 권유로 도쿄대 진학을 결심했다.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주씨는 이날 처음 도쿄대를 직접 방문했다며 "아시아 최고 대학의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감명된 얼굴을 보였다.

### "중국 대입경쟁의 10분의 1도 안 돼"

도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고치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푸젠성 출신의 리(25)씨도 도쿄대 출신이다. 최근 중·일 관계는 안 좋지만 "일본인은 정말 친절하다. 외교관계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불편함이 없다고 했다.

도쿄대에 입학하는 중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쿄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 5231명 중 중국인은 3545명(67.8%)으로, 2014년의 1270명에서 약 3배로 늘었다. 전체 학생 수 2만9195명 중 12.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고치학원의 양거 대표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다. 중국에선 한 해 1000만 명이 도전하지만, 일본 수험생은 50만 명이라 경쟁률이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학 입시는 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수



1 |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대 교문 앞.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2 |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대 정문 앞에서 고치학원 관계자들이 중국인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 3 |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고치학원 본부 입구에 지난해 일본 명문대 합격자 수가 소개돼 있다.



재는 바오쑹으로 불리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일반 수험생은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高考)'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며, 한 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사립대라면 여러 곳에 지원할 수 있고, 유학생들은 국립대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이 중국 내에 알려지면서 일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급증한 것이다. 현재 고치학원의 학생 수는 약 3500명. 교재가 한국어로도 번역돼 한국인 학생도 약 20명이 있다.

양 대표는 "중국에선 하루 16시간 공부해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며 "사실 입시공부는 AI 시대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일본에서 여행도 하고, 책도 읽으며 입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일본 유학의 매력을 얘기했다. 도쿄대의 지난해 유학생 시험 합격자 29명 중 17명이 고치학원 출신이다. 학부보다 대학원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원을 포함하면 61명이나 합격자를 배출했다.

### 중국 학생, 10년새 3배 늘어나 중국 경기침체와 취업난 영향 가족이 함께 초등학교 유학도 일본인 일자리 뺏긴다 우려도

#### 부유층의 탈중국현상 '론리'

코로나19 전후로 '교육 이민'도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자녀가 어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일본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거나, 일본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일본어 실력을 키운 후 입시를 통해 명문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인 학생이 급증하면서, 일부 국제학교에선 중국인 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을 정도다. 도쿄대가 위치한 분쿄구(文京区) 초등학교 주변의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 이 지역 부동산엔 중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중국인이 늘어난 지역은 도쿄스(豊洲)다. 도쿄스가 위치한 고토구(江東区)의 중국인 주민은 지난해 1월 현재 1만8639명에 달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쇼핑가 긴자(銀座)에 가깝고, 도쿄타워와 스카이트리, 도쿄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입지를 자랑한다. 최근 고급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중국인 부유층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다. 도쿄스는 일본인 사이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다. 명문 중학교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학원 '사픽스(SAPIX)'의 도쿄스캠퍼스에 다니는 학생 10명 중 1명이 중국인이다.

도쿄스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한 엄마는 "아이가 다니는 대형 입시 학원은 같은 반에 중국인이 최소 4명이 있다. 중국인은 정말 강한 것 같다"며 그들의 교육열을 소개했다. 실제로 도쿄대의 중국인 학생 중엔 유학생 시험이 아닌 일본인들과 같은 입시를 치르고 입학한 학생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취업난"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생김새가 비슷하고 같은 한자 생활권이어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적응하기가 쉽다"고 덧붙혔다.

#### 도쿄 주요학군 부동산 매입도

1년반 동안 100명 이상의 중국인을 인터뷰하고 지난해 『론리(潤日)-일본으로 탈출하는 중국인 부유층』을 출간한 저널리스트 마스토모 다케히로(舛友雄大)씨는 "코로나 당시 중국에서 봉쇄를 겪으면서(시진핑) 체제에 의문을 갖게 된 사람 중에 자녀를 일본에서 교육하려는 이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마스토모씨에 따르면 론(潤)은 2018년에 생긴 신조어다. 치열한 경쟁과 취업난으로 불안을 느껴 일본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들을 '론리'라고 부른다.

명문대에 중국 학생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긍정적인 자국이 될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치열한 경쟁에 익숙지 않은 일본인들이 학교나 일자리를 중국인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계심도 존재한다.

교육 이민이 가능해진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의 장기 체류 비자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발급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 비자 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자민당 내 우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스토모씨는 "부모 중엔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지역사회에서의 도치 않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자 완화에 대한 비판은 일본인들의 반발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노스키 도모코 특파원

### 1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 이어집니다

사립의 소규모 학급이 상호작용과 대화가 더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25~30명 학급이 실제로는 더 잘 관리되고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증거도 있다.

▶교사 경력 및 자격증  
학급 규모에 관계없이 학부모는 공립 및 사립 학교 모두에서 교사의 자격증, 경력 및 전문성 개발 의무를 살펴보고 싶을 수 있다. 상당수 사립 교사

가 공립 교사처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사립에서는 교육학만 전공한 교사보다 학생들에게 더 권위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고급 학위를 가진 과목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립은 공립처럼 주정부 표준시험 성적에 연연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매력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이 더 크다. 사립은 일반적으로 주에서 요구하는 시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학비

공립 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사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사립에 보내려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이 있거나 장학금, 대출 또는 주 및 지방에서 제공하는 공공 지원 바우처 등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수업료는 사립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다. NAIS에 따르면 2022년 9월 사립 초중고교의 수업료 중간값은 2만7408달러이고 사립 기숙학교는 평균 6만3650달러를 청구한다.

가톨릭 등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일반적인 독립 학교보다 학비가 저렴한 경향이 있다. 2023년 사립 가톨릭 초등의 연평균 수업료는 4840달러로 전체 사립 초등학교의 1만1207달러에 비해서 저렴하다. 가톨릭 중학교의 평균 수업료는 1만1240달러인 반면, 독립 사립 중학교는 1만6645달러였다.

▶인종적 구성의 다양성  
사립 학교의 인종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공립 학교와 다르다. NCES 자료

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 사립 학생의 66%가 백인이었다. 히스패닉계는 12%를 차지했고, 9%는 흑인, 7%는 아시아계였다. 반면, 2021년 가을 자료에 따르면 공립 학생의 45%는 백인이었고 히스패닉계는 28%를, 15%는 흑인, 5%는 아시아계, 나머지 7%는 혼혈, 태평양 섬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이 차지했다.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공립에서 그러한 다양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장병희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웃브리지 타운홈	페어팩스 타운홈
<b>1 Day PENDING</b>	<b>UNDER CONTRACT</b>	<b>RENT</b>
<b>\$1.2 M</b>	<b>\$495,000</b>	<b>\$3,600</b>
Corner Lot Many Upgraded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방4, 화3.5, 조지메이슨대학 근처 Very Good 컨디션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Annandale 싱글홈 \$890,000  
\*\*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모나리자’는 왜 유명해졌나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문화전문기자

지난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 섰다. 루브르 박물관의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그 계획의 하나는 ‘모나리자’만을 위한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해서, 이 작품만 볼 관람객은 별도의 티켓으로 메인 박물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오직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루브르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프랑스 기업인 75조에 매각 주장

지난 2020년에는 한 프랑스 기업인이 프랑스 정부가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모나리자’를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해서 화제를 모았다. 이때 그는 ‘모나리자’가 격으로 무려 500억 유로(현재 환율 기준 75조원)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1%를 넘는 액수다. 그는 ‘모나리자’의 엄청난 관광 수입 효과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로지 이 그림을 보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며, 각 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평균 1500유로(225만원)를 쓰니 ‘모나리자’는 매년 30억 유로(4.5조원)를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이 계산이 논리 비약적이라는 반박도 많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에는 토를 달는 이가 없다. 20세기부터 미디어의 발달로 유명함과 경제적 수익의 관계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일찍이 1971년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날수록 어텐션(attention, 주목 혹은 관심)은 희귀한 자원이 된다”고 했다. 또 1997년 언론인 마이클 골드버는 “새로운 경제의 통화는 돈이 아니라 어텐션이다”라고 했다. 희귀 자원인 주목을 많이 받을수록, 즉 유명할수록 경제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21세기에는 이것이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에 비례한 수익으로 공식화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건축가 겸 경제학자 게오르크 프랑크는 주목도나 유명함이 자본의 속성을 지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



1 지난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구경하기 위해 몰린 관람객들. 2 1913년 절도범에게서 되찾은 ‘모나리자’를 검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관계자들.

## 도난 사건 전까진 평범한 명작 범인 잡히며 달리 등 패러디 1963년 미 특별전 160만 관객 ‘유명함’의 편견은 경계해야

생한다고 했다. 루브르에서 별도의 전시실을 갖게 될 ‘모나리자’야말로 이런 ‘유명함의 승자 독식 현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모나리자’는 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사실 ‘모나리자’가 지금처럼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20세기부터다. 그 전에 시시한 그림으로 취급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레오나르도는 생전에 이미 잘 나가는 화가이자 공학자였고, 특히 그가 인물을 표현할 때 쓰는 스푸마토 기법은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스푸마토는 ‘연기 같은’이라는 뜻으로, 색채와 명암의 경계를 흐릿하고 미묘하게 처리해서 입체감을 살리면서 부드럽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기법이다. ‘모나리자’는 그런 스푸마토 기법을 특히 잘 활용해 인물의 신비로운 미소를 빛내서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독보적으로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다.

이탈리아 사람인 레오나르도는 1517년 초청을 받아 프랑스에 가게 되었다. 그때 그가 1506년까지 작업하다 미완성으로 두었던 ‘모나리자’를 들고 갔고 프랑스에서 완성한 후 1519년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국왕은 ‘모나리자’를 물

려받은 레오나르도의 제자에게서 그림을 구입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나리자’를 비롯한 왕실 소장 예술품은 모두 국민 소유가 되었다. 이후 왕궁에서 공공 박물관으로 변모한 루브르에서 1797년부터 전시되기 시작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면서 ‘모나리자’의 명성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탁월한 초상화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모나리자’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만든 것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도난 사건이다. 1911년 8월의 어느 날, 루브르의 학예사들은 ‘모나리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에는 작품을 벽에 고정하지 않았고 연구나 보존 처리를 위해서 학예사가 신고 없이 떼어 갔다가 돌려놓는 일도 많아서 없어지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도난 당한 줄 알았다고 한다. 당시 보안이 얼마나 허형했는가를 하면 루브르에서 자잘한 유물을 훔쳐가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2년 후인 1913년 12월에야 ‘모나리자’를 훔친 진범이 붙잡혔는데 그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루브르의 인부로 일하던 빈첸초 페루자였다. 그는 ‘모나리자’를 2년 동안 자기 방에 숨기고 있다가 이탈리아의 대표 미술관인 우피치에 팔려고 했지만 미술관의 신고로 붙잡혔다. 우피치는 ‘모나리자’를 루브르로 돌려보냈다.

페루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탈리아인이 그린 그림이니 고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훔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나리자’는 합법적으로 프랑스의 소유가 된 것이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족 감정이성을 누르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페루자는 이탈리아에서는 애국 영웅 대접을 받으며 징역 7개월의 비교적 가벼

운 형을 살았다.

‘모나리자’의 실종과 회수를 둘러싼 이 모든 일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사건 자체도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데다가 20세기 초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당시 프랑스에 모여 있던 전위예술가들이 ‘모나리자’를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했다. 변기를 작품으로 내놓아 악명을 떨친 마르셀 뒤샹이 1919년 ‘모나리자’ 프린트에 콧수염을 그리고 외설적인 어구를 넣은 작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살바도르 달리 등 여러 작가가 ‘모나리자’ 패러디를 내놓았다.

유명함의 편견 벗고 감상해야

또한 프랑스의 뒤를 이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등극한 미국에서 1963년 ‘모나리자’ 특별전이 열려 160만 명 구름 관중을 모으고 ‘팝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 등이 ‘모나리자’ 패러디를 제작하면서 ‘모나리자’는 더욱더 유명해졌다.

한마디로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데에는 그림 자체의 뛰어난 작품성도 있지만 ‘운발’이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도난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 거기에 영감을 받은 미술가들이 패러디를 생산해낸 것,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것은 운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프랑크가 말한 대로 ‘유명함’은 자본의 속성을 지닌다. 돈이 일단 축적되면 불리기가 쉬운 것처럼, 유명해지면 더욱 유명해지기 쉽다.

‘모나리자’는 훌륭한 작품이지만, 사실 그만큼 훌륭한데 유명하지 않은 작품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미술이든 문학이든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유명함’의 편견에 너무 갇히지 않을 필요가 있다.



황원목의 과학 산책

## 고난-성취의 정리

역경 극복의 이야기들은 영감을 준다. 거장 베토벤은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청각을 잃고도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다. 2018년에 작고한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사진)은 전신 마비의 희귀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기원과 블랙홀, 그리고 대중 과학교육에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이론 물리는 머리 쓰는 학문이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극히 어려운 수식 계산을 종이에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가히 초능력이라 할만하다.



건강 문제 외에 가난, 사회적 수단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경지에 달한 위인들은 여러 분야에 있다. 많은 경우 이들에게 고난은 극복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성취의 원동력이었다.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은 스머있는 고뇌가 환희로 승화된다. 호킹도 신체적 제약이 마음을 해방시켜 획기적인 이론들을 개척할 수 있었다 했다.

역경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 것은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적용할 수 있다. 자연에도 비슷한 섭리가 있다.

고요한 물에 떨어진 잉크 방울은 브라운 운동을 통해 확산하며 퍼진다. 잉크 분자가 움직이는 힘은 주변 물 분자들의 열운동에서 얻고, 나아가는 잉크를 막는 것도 물 분자들이다. 각각 다른 인생처럼 잉크 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이 그 운동을 저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관계를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변동-소멸의 정리라 부른다.

브라운 운동 없이는 생명현상도 없으니 우리의 삶은 분자 단위의 저항이 있어서 가능하다. 우연과 필연이 섞여 있는 인생의 브라운 운동에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가는가에 영향을 준다. 거시적으로는 앞을 가로막는 일들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나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텍사스A&M대 생명공학부 교수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 3월 HOT 리스팅

-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테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 렌트**
- 매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매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 차고 2, 입주 6월
- 첸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3.5, 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탐 학자금 애듀피아



# 부모나 학생의 신분에 따른 재정 보조 신청

**Q** 부모는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학생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런 경우에 학생은 부모의 신분과는 관계 없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학비보조 제도는 부모가 아닌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부모의 신분은 관계없이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 보조 신청서인 FAFSA와 CSS Profile을 신청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부모가 주재원으로, 혹은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자녀를 낳았다. 가족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인 자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처럼 학자금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학비를 지불하고 와야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 없이 미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정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 원화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FAFSA 또는 CSS Profile을 작성하면 된다. 환율은 계속 변하므로 신청할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FAFSA 신청시 부모의 거주 주(State)는 외국을 말하는 'Foreign Country'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보조를 신청해 주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미국 시민은 최소한 한 주의 주민이다. 따라서 학생은 미국의 특정 지역에 거주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학생이 태어난 곳, 미국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줄리 김 탐애듀피아 대표

주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정 나이가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어느 주에나 자신의 거주지를 확립한다는 것은 학자금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주민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주정부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정부나 주립대학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

**Q** 유학생 신분일 경우도 학자금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학생의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는 학생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즉 학교에 따라서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비 보조 신청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자금 신청을 허락하되 학생의 경제적 필요를 100% 채워주지는 않고 학교의 제한된 펀드 내에서 학교의 재량에 따라 재정 보조를 해주는 학교도 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펍사 신청 자격은 물론 없고 지원 학교에 표준화된 외국 학생 학비보조 신청서(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와 그 외에 학생 가정의 수입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이 재정 보조 신청을 함으로써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성적과 스펙의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재정 보조 신청을 했고, 다른 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불하고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학생을 합격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생의 재정 보조 신청은 학교에 대한 리서치와 전략을 요구한다.

한가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유학생이(F-1 비자 소유자) 사립대학에 편입하면서 거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 것도 있다.

처음 미국에 유학 올 당시에는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다 책임지겠다고 부모가 재정 증명을 해서 입학했지만 일단 부모의 재정 형편이 악화되기도 했고 학생도 학교에서 탐을 낼 정도로 우수한다다가 학생이 FAO를 직접 찾아가 본인의 처지를 설명한 것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도 예외가 아님을 명심하자.

▶문의) 703-576-7803,

Email:topedupia@gmail.com

에듀 포스팅

## GPA,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에세이·추천서로 부족분 채울 수 있어

여름방학은 모든 학년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12학년년을 맞이할 학생들은 이제 대학 원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또한 여름캠프, 인턴십 등도 함께해야 하는 시기여서 더욱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의 부담을 느낀다.

12학년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성적, 특별활동 등을 정리하여 대학 지원 리스트를 만든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9학년년부터 11학년까지의 학업 성적을 종합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에 얼마나 근접한지 또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등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GPA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며 최상위 성적이 아니라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보자.

### ▶대입에서 GPA는 얼마나 중요한가

대학에서는 가장 먼저 'Number' 즉 Test scores(15%), Grades & Coursework(20%)의 점수들을 합친 것을 Number라고 하여 점수를 먼저 리뷰한다.

이 과정에서 내신성적은 20%이지만 여기서 코스 선택의 난이도를 리뷰한 성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여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고 높은 성적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SAT/ACT와 내신성적 등을 합쳐 대학 원서에서 차지하는 수치는 35%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Academic Index의 지표를 만들어 좀 더 쉽게 학생들의 지원서를 리뷰하며 내신성적은 입학 사정관이 자녀들의 지원서를 읽어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 ▶부족한 GPA로 대학 가는 방법 5가지

#### 1. 아직도 성적을 높일 기회는 있다.

여름방학을 통하여 온라인 클래스를 택할 수 있도록 학교 카운슬러와 상의하여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수강한다. 물론 모든 고등학교들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녀의 해당 학교와 의논을 통하여 필요한 클래스를 수강하여 GPA를 올린다.

#### 2. 낮은 성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

대입 원서에 추가 정보섹션을 활용하여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친 외부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학교 카운슬러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여 추천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누구나도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 3. 시험 점수들을 높인다

SAT/ACT/AP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은 앞서 말한 Academic Index 지수

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시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되며 더구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 점수의 높은 결과는 학생의 아카데믹 수준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4. 돋보이는 에세이

자녀의 에세이는 전체 입학 사정관이 학생들의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데 에세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다. 앞서 말한 내신성적과 코스의 난이도는 20%를 차지한다고 말한 것을 비교한다면 에세이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에세이는 학생의 가능성과 학생의 모습을 잘 그려낼 수 있는 에세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의 어떤 부분과 학생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지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돋보이는 에세이는 나쁜 성적을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 5. 강력한 교사 추천서

추천서 역시 입시에 중요한 부분이며 10%의 대입 심사를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선생님의 추천서는 어느 정도의 낮은 GPA를 상충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교사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대학 입학에서의 전략적인 부분이다. 단 추천서를 부탁할 선생님은 가능한 11학년 선생님이 좋으며 2년 이상 자녀를 가르친 선생님이면 더 유리하다.

원서를 쓰기 전까지 부족한 성적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성적 이외의 학생의 다른 면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학생의 꿈의 대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변 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봄맞이 특별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산채 기공, 산채 대장균과 산채 미생물 복합 영양제

신상 제품군

**대박 SALE \$48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meditree

코팅식이섬유

## 레벤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 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  
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플러스 항병 공파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발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가장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홍삼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디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항산화제

**3+1 스페셜 그린 프로플러스**

1oz \$45  
4oz \$125

프로플러스 스프레이  
프로플러스 알콜프리  
프로플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감**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감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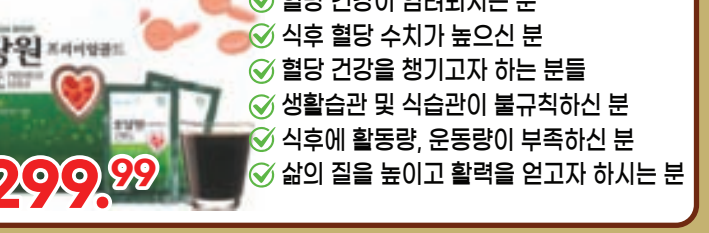
장수 넘버원  
홍화씨  
때,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달에  
글루타치온  
367mg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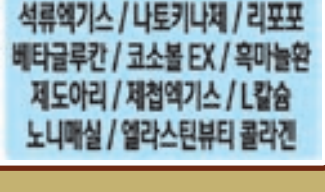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액기스 / 니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놀한  
제도아리 / 재첩액기스 / L칼슘  
노니액질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산습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 손흥민의 강심장, 토트넘에 '심폐소생술'

본머스전 1-2로 뒤진 후반 36분 70m 폭풍 질주해 페널티킥 따내 골키퍼 정면 '파넨카킥' 리그 7골 손, 45분 뛰고 팀내 최고 평점 8점



10일 본머스전에서 페널티킥 동점골을 터뜨리는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왼쪽). 후반전만 뛰고도 팀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로이테]

손흥민(33)이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본머스전에서 페널티킥 동점골로 팀을 패배 직전에 구했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강심장'의 상징인 '파넨카(Panenka)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이 1-2로 뒤진 후반 36분, 70m를 질주해 상대 페널티 박스 왼쪽으로 침투한 손흥민은 제임스 메디슨이 스루패스한 공을 먼저 터치했다. 그 순간 손을 짚으며 몸을 날린 상대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손흥민은 골키퍼가 몸을 날리기를 기다려 공 밑 부분을 살짝 찍어 차 골문 한가운데로 보냈다.

파넨카킥. 골키퍼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막힐 수 있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시도하지 않는 킥이다. 197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1976) 결승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 안토니 파넨카가 시도해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킥이다. 놓친 골키퍼 입장에서 강슛에 골을 내줄 때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

사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30일 올버햄프턴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다. 그 뒤로 페널티킥을 맹연습했다. 당시 올버햄프턴 황희찬은 손흥민이 자주 차는 왼쪽을 가리키기도 했다. 파넨카킥 시도는 지난 실수까지 넘어섰다는 일종의 자기암시인 셈이다. 공식전 10경기 만에 골을 신고한 손흥민의 리그 기록은 7골·9도움이었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이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됐다. 후반 9분에는 오른발 감아차기슛을 시도해 골포스트를 맞혔다. 손흥민의 후반 투입은 오는 14일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알카르(네덜란드)에 대비한 체력 안배 차원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3위(10승4무14패)로 부진한 토트넘에 우승 가능성이 남은 대회는 유로파리그뿐이다. 토트넘은 지난 7월 16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알카르에 0-1로 졌다. 유로파리그에서도 탈락할 경우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경질은 시간문제다. 토트넘의 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당시 교체아웃된 메디슨이 "항상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다"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감독 전술을 저격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손흥민의 득점이

줄어든 것과 전술적 문제를 연관 짓는 해석도 나온다. 손흥민은 경기 후 "홈에서 승점 3을 따지 못해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45분만 뛰고도 팀내 최고인 평점 8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근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주장직 박탈' '다른 팀 매각' 등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토트넘 담당인 한 현지 기자(폴 오퀴프)는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들어와 골대를 맞히고 페널티킥을 따내고 골을 넣었다. 차(tea)까지 끓여주길 원하는가"라고 쓰며 손흥민을 옹호했다. 박린 기자

# '셀틱 활약' 양현준 홍명보호 첫 승선

월드컵 3차예선 대표 명단 발표

11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젊은피' 양현준(23)·양민혁(19)이 가세한다. 두 선수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10일 발표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표 소집명단(28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일 오만(7차전)과 25일 요르단(8차전)과 각각 고양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격돌한다. B조 선두 한국(4승2무·승점 14)은 두 경기에서 이길 경우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한다. 아시아 3차 예선에선 조 1·2위가 본선에 직행한다.

일단 홍 감독은 손흥민(토트넘)·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파를 대표팀 주축으로 유지하며 안정을 꾀했다. 변화도 약간 줬는데, 최근 발끝이 뜨거운 양현준의 발탁이다. 홍 감독 체제에선 처음이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양현준은 최근 7경기에서 4골·5도움을 몰아쳤다. 지난해 2월 아시안컵 이후 1년 1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 9월 홍 감독의 선택을 받고도 국가대표 데뷔전은 치르지 못한 양민혁도 5개월 만에 재소집됐다. 토트넘에서 챔피언십(2부) 퀸즈파크레인저스(QPR)로 임대돼 적응 중이다.

양현준·양민혁은 K리그 강원FC에서 함께 뛰다가 유럽에 진출했다. 홍 감독은 "지난 1월 유럽에서 양현준을 직접 봤을 땐 팀의 세 번째 옵션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양민혁에 대해선 "순간적인 움직임을 가끔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았다. 한국축구의 주축이 될 선수"라고 평가했다. 홍 감독은 챔피언십 스토크 시티 배준호(22)와 스완지시티 엄지성(23)도 같은 이유에서 대표팀에 뽑았다. 이어 손흥민에 대해 "(리그에서) 예전보다 출전시간도 득점도 적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 잊으면 안 된다"며 신의를 표시했다. 박린 기자



# 퍼트 살아난 안병훈, 시즌 첫 '톱 10' 기지개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8위  
특급대회 선전, 랭킹 61계단 상승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아이언샷 직후 볼의 궤적을 살피는 안병훈. [연합뉴스]

시즌 초반 주춤하던 안병훈(34)이 톱10에 들며 기지개를 폈다. 안병훈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인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5언더파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의 러셀 헨리(36·미국)가 우승했다. 2022년 이후 첫 우승이며, 통산 5승째다.

지난 시즌 21위였던 안병훈의 페덱스 랭킹은 이번 대회 전 113위까지 내려

갔다. 랭킹 점수가 높은 시그니처 대회에서 톱10에 들면서 61계단이 올라서게 돼 52위가 된다. 사실 이번 시즌 안병훈은 그라운드에서 특히 좋지 않았다. 이번 대회 전까지 퍼트로 다른 선수보다 0.652타를 더 잃었다. 이번 대회는 그런이 때 우 빠르고 어려웠는데도 오히려 0.313타를 벌였다. 안병훈은 "대회를 앞두고 퍼트 코치를 바꿨다. 분위기 전환에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롱게임도 함께 좋아졌다. 이번 대회에서 안병훈은 출전 선수 평균보다 티샷은 3.31타, 아이언샷은 3.96타 더 잘 쳤다. 안병훈은 "스윙 코치인 션 폴리가 이번 주 내내 대회장에 있어 마음이 편했다"고 말했다. 재미교포 마이클 김(32)은 최종라운

드에서 3타를 줄여 8언더파 4위에 올랐다. 최근 5경기 내내 우승권을 맴돈 마이클 김은 페덱스 랭킹 8위로 올라서게 된다. 임성재(27)와 김시우(30)는 나란히 1언더파 공동 19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최종라운드를 2타 차 선두로 출발한 콜린 모리카와(28·미국)는 역전패했다. 13번 홀까지 3타 차 선두를 달렸지만, 결국 막판에 추월당했다. 2019년 데뷔한 모리카와는 4년간 메이저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뒀다. 하지만 2023년 개막전 센트리 챔피언십에서 6타 앞서다 존 램(31·스페인)에 역전패한 이후 "끝내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랜드=성호준 골프전문기자

## 채여혜 한의원

###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 침·부항·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경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 채여혜 한의원

###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3월  
구  
인  
광  
고

###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기계 디자인만큼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꼭지 교체</li> <li>◆싱크/디스포저</li> <li>◆워터히터/물새는것</li> <li>◆하수막힘/변기교체</li> <li>◆씽폼프 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루핑수리/거리교체</li> <li>◆사이드 리페어/창문</li> <li>◆데크 수리</li> <li>◆드라이얼/페인트</li> <li>◆파워워시</li> </ul>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ingle days; 독신 시절

Gary is staring out the window when his wife enters the room.

(게리가 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아내가 방으로 들어온다.)

Ellen: You look like you're deep in thought.  
엘렌: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 같아.  
Gary: I am. I'm looking back on my single days.  
게리: 응. 총각때 생각하는 거야.  
Ellen: Does that mean that you don't love me anymore?  
엘렌: 그 말은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Gary: Of course not. I love you more than ever.  
게리: 그건 물론 아니지.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Ellen: Then prove it by cooking dinner tonight.  
엘렌: 그럼 오늘 저녁 하면 믿지.  
Gary: I'll do better than that. I'll buy you dinner at your favorite restaurant.  
게리: 그보다 더 한 것도 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 살게.  
Ellen: That's a great idea. Now tell me what you were thinking about.  
엘렌: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무슨 생각을 그

렇게 했어.  
Gary: I was wondering what I did with all my free time.  
게리: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뭘 했나 싶어서.  
Ellen: As I remember you wasted most of it drinking and carousing.  
엘렌: 내 기억으로 자기는 시간 나면 대개 술 마시고 흥청대며 보냈지.

**기억할만한 표현**  
▶ (one) is deep in thought: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  
"He didn't hear you because he's deep in thought." (그 사람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네 말을 못들은 거야.)  
▶ look back on: 옛날을 돌아보다 회고하다  
"He likes to look back on his college days." (그 사람은 말이야 즐겨 대학 시절을 회고하지.)  
▶ free time: 여가. 자유시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가로열쇠

(1)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 (3) 흰 바탕에 청색, 황색, 흑색, 녹색, 적색의 고리 다섯 개를 겹쳐 놓아 오대주의 평화와 협력을 상징한다 (5) 말굽에 대어 붙이는 U자 모양의 쇠조각 (7) 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 (8) 풍물패에서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고 재주 부리는 아이 (10) 독립 운동가이며 역사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의 작사가이죠 (12)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 (13) 야구나 배구에서, 날아갈 때 공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공 (15) 질반이 낚는 수 (16) 간절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주는 물품. 두 연인은 실가락지를 ~로 삼아 끼기로 하였다 (17) 반죽을 가늘고 길게 뽑아낸 식품 (18) 펄프질할 때 위로 붓는 한 바가지의 물 (21) 참외, 수박을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지은 막 (24) 예순 살 (25) 남의 물건을 조금씩 몰래 훔쳐내는 짓 (27) 몸에 상처를 입음 (28) 전보다 더 좋은 자리나 직위로 옮김 (29)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31)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측하는 계기 (32)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 아래.

세로열쇠

(1) 넓고 커서 끝이 없음. ~의 우주 공간. □대 □□ (2) 딱살로 눌러 모나거나 둥글게 만든 떡. 쫄 따위를 넣거나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이기도 한다 (3) 낮에 자는 잠 (4)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뼉을 쳤 (6) 오염된 물 등이 생물학적 작용 등으로 저절로 깨끗해짐. 생태계의 ~ 능력 (7) 한집안의 보배가 될 만한 귀중한 물품 (9)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11) 상반신은 여자의 몸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12) 행정부의 우두머리 (14) 무엇을 빨거나 씻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15)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생산하는 곳 (18)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음. 남의 말에 귀가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 버림 (19) 한 달 가운데 11일에서 20일까지의 동안 (20)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22) 콩을 갈아서 만들죠 (23)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25) 성품이나 태도가 침착하고 단정함. ~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26) 아주 길어 들어서 몸에 꼭 밴 버릇. ~이 나다 (28) 병아리보다 조금 큰 어린 닭 (30) 눈썹에 불이 붙었음. 매우 급함. ~의 관심사.

스도쿠

7						3		5
		4	2	9		8		
				6				
1					8			
2		5	3			4	9	
	4	7		2		6	8	
8		1			9			
		2		1	7			8
9	6			2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7	1	2	5	8	9	6	3
8	3	6	7	1	9	2	5	4
9	2	5	6	3	4	1	7	8
3	8	9	1	2	5	7	4	6
1	6	4	9	6	7	3	5	8
2	5	7	8	4	6	3	9	1
6	4	2	3	9	7	8	1	5
7	1	1	8	5	6	2	4	3
5	9	3	4	8	1	6	2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40년된 덴탈랩매매**  
 살기좋은 세크리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 ("가격문의) 꼭 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세탁소매매**  
 텍사스지역 가격\$18만, 렌트\$1,400 월매상 \$25,000 (806)894-3044 (213)663-2770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한국화장품샵 구인**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실 경험 많은 분 영어가능자, 아파트 제공 (907)250-8864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레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전문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기손가락 크기 양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뤼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소매·도매 민물장어 판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당신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EB-3 비자**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닭공장, 생선공장 등 ]  
**자격 조건** 유학생 포함 합법 신분 소지자, 학력, 경력 및 영어 성적 무관, 건강하며 범죄기록 없는 자. 누구나 지원 가능.  
 웹사이트: www.worldwidecompass.com  
 전화문의: 213-788-8376 (엘에이), 470-223-3979 (아틀랜타)  
 이메일 문의: kseri@worldwidecompass.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